

2019 제8호

高城文化



江原道高城文化院



고성동일전망타워

2019년 12월 28일 개장한 통일전망타워는 기존의 전망대위
비교하여 20m가 높은 총 54m의 3층 규모의 건물이며, 남과
북이 서로 만나는 평화통일의 꿈을 형상화 하였다고 한다.
1층은 카페와 휴식공간 판매장, 2층은 통일 홍보관과 브리핑실
3층은 전망대의 브릿지 등을 운영한다.

2019 제 8 호

高城文化



江原道高城文化院

차례 / Contents

01. 발간사

15p | 발간사 /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02. 축간사

17p | 축간사 / 이경일 (고성군수)

03. 특별기고

21p | 신뢰 · 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고성의정 / 함형완 (고성군의회위원장)

26p | 4월 산불 이재민이 대한민국에 고함 / 박효동 (도의회 산불특위 위원장)

28p | 지금이 고성관광컨텐츠 발굴의 적기 / 이양수 (국회의원)

33p |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관광! / 한봉기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

40p | 알프스의 희망 / 이영욱 (고성 교육지원 교육장)

04. 기획특집

47p | 고성지역의 고문서 / 김광섭 (향토사학자)

65p | 장승문화축제 “장승에게 통일에 길을 묻다” / 김장민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05. 핫 이슈 (제언)

79p | 왜 우리 고성엔 발전이 더딜까? / 함종득

85p | 나의 살던 고향은? / 최삼규

91p | 태백산의 정기 / 최기종

97p | 평화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 / 권성준

차례 / Contents

06. 향토사 조명

- 105p | 고성군의 지질자원 활용에 대하여 / 김춘만
- 114p | 고성 하니 라벤더 팜과 장소 마케팅 / 신창섭
- 117p | 고성지방의 구비문학 / 이선국 (고성문화포럼 대표)
- 127p | 숨은 보석 아름다운 보석 / 김봉연

07. 오피니언 칼럼

- 133p | 동양사상과 간성군 고찰 / 어재동
- 137p | 캠핑장 안전수칙 준수로 힐링을 떠나보자 / 유종근 (고성소방소장)

08. 향토문단

- 141p | 보석의 섬 제주도 방기(2018), 2019. 문화탐방을 떠나다 / 최선호
- 152p | 그렇거니 하세요! / 박봉준 (고성문인협회장 . 시인)
- 157p | 가을날 귀향의 꿈 / 황연옥
- 162p | 고양살이 / 연경숙

09.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 167p | 시(詩) 삶 / 최형운
- 168p | 시(詩) 눈부신 경정 / 박봉준 (고성문인협회장 . 시인)
- 169p | 시(詩) 여름 한낮 / 황귀식
- 170p | 시(詩) 깨달음 / 최기종

차례 / Contents

- 171p | 서예(한글) / 윤완용 . 조방실
- 172p | 서예(한문) / 최봉림 . 문창례
- 173p | 한국화 ”산수유가 핀 고향” / 김정순 . “코스모스 길” / 박숙종
- 174p | 유화 “정원” / 주운옥 . “라벤더 필 무렵” / 최향미
- 175p | 민화 제36회 고성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축하 민화 출품전시회
수성문화제 부스에 설치된 민화 출품작품들(2018년도)
- 176p | 사진 “연” / 홍의현 . “수뭇개바위 일출” / 임은경
- 177p | 사진 “북천하구의 노을” / 윤선준 . “왕곡마을” / 최명봉
- 178p | 각자(刻字) 청간정(택당 이식) / 寒松 최선희
명태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 이규동
- 179p | 시화 “스물” / 김춘만 . “엄마” / 김향숙
- 180p | 시화 “세월” / 최형운 . “라벤더” / 홍의현

10. 문화원 소개

- 183p | 고성문화원 연혁
- 185p |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및 역대문화원장 소개

11. 회원가입

- 189p | 고성문화원 회원자격 및 가입방법

사진으로 보는 고성문화원



▶ 수성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 (2018. 7. 26. 영상음악실)



▶ 군지발간 집필위원 회의 (고성문화원 소회의실)



▶ 제1회 고성군지 편찬 위원회 (2018. 9. 12)



▶ 2018 송년음악회 (2018. 12. 26 / 고성문화원 3층 대강당)



▶ 고성통일전망타워 개관식 (2018. 12. 26)



▶ 2019 설악문화원 연합회 통일전망대 견학 (2019. 02. 21)



▶ 강원고성문화원-충남청양문화원 업무협약식 (2019. 3. 12)



▶ 제21회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참가 / 양군 장승 혼인식 (2019. 04. 13)



▶ 2019 고성산불피해 후원금 기탁 (성금 1,000,000원) 고성문화원



▶ 수성문화재단위원회 이사회 (2019. 07. 03 / 고성문화원 영상음악실)



▶ 2019 고성문화원 문화탐방(구인사 대웅전 앞) 2019. 06. 26~27.



▶ 국립공원(설악산) 생태나누사업 문화체험 기념 (2019. 09. 26)



▶ 제37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향토작가 전시회 커팅 (2019)



▶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수성제례 (고성실내체육관 / 2019. 09. 23)



▶ 제37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본부석을 지나는 가장행렬단)



▶ 수성문화제 축하행사 / 간성공설운동장 특설무대 (2019. 09. 23)



▶ 수성문화제 축하공연 관람 (간성 종합운동장 특설무대 / 2019. 09. 23)



▶ 2019 백두대간(향로봉)평화트레킹 대회, 정상에서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봉행

발 간 사



고성문화원장
朱基暢

郷土文化는 군민들의 삶과 質 향상에 대한 尺度이며 지역문화의 礎石으로서 그 가치를 高揚시키고 自矜心を 高趣하는 일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의 淸淨地域으로 북쪽으로 金剛山을 所在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빼어난 自然景觀을 자랑하는 고장으로 예부터 역사적인 人物은 물론, 뛰어난 文化藝術을 꽃피우던 고장입니다.

이를 土臺로 고성문화원은 그간 많은 史料發掘과 함께 곳곳의 有名地에 대한 冊子 발간과 함께, 문화예술 전승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2018 년도에는 松池湖와 旺谷마을 그리고 仙遊潭에 대한 叢書를 발간하였으며, 2019 년도에는 충청도 청양군과 業務協約을 맺고 칠갑산 천하대장군, 금강산 지하여장군 傳統婚禮式을 갖고, 또한 우리 고성군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통일을 念願하고 모든 國民의 安寧을 기원하는 금강산 천하대장군, 청양군 지하여장군 장승을 세워 傳統的인 멋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고성문화원을 군민들의 문화예술 享有을 위한 갖가지

문화예술 진작에 努力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高城文化” 第 8 號 발간에 적극적으로 支援하신 이
경일 군수, 함형완 고성군의회의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책자 발
간에 玉稿를 보내주신 各界人士와 고성문화원 會員, 그리고, 그간
편집에 힘을 기울여 주신 崔善鎬 고성문화원 郷土史研究委員께 다
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년 10 월

축 간 사



고성군수
이경일

우리 고성군의 향토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高城文化 8호」가 발간된 것을 전 군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에 애쓰시는 고성문화원 주기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 어디든 하루면 갈 수 있게 된 오늘날, 우리는 어딜 가든 서로가 한국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기인하여, 우리의 행동 양식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수집과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활동의 기록은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고장의 향토사와 향토문화를 후세에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군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성에서 살면서도 고성에 대해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공현진리의 선유담, 금수리의 수타사, 고성산의 공양왕 간성릉, 선유실리의 선녀탕 등과 여기에 얹힌 설화들. 여기 이 「高城

文化誌」가 없었다면, 우리 고성의 향토사와 향토문화는 결국에는 잊혀지고, 후세에도 영원히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高城文化誌」와 같이 향토자료를 발굴하여 수록하고 아울러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지(文化誌)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모두가 「高城文化誌」를 읽고 과거와 현재를 알고 개인과 고성군 전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년 10 월

특별기고

-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고성의정 / 함형완(고성군의회의회장)
- 4월 산불 이재민이 대한민국에 고함 / 박효동(도의회 산불특위 위원장)
- 지금이 고성 관광콘텐츠 발굴의 적기 / 이양수(국회의원)
-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관광! / 한봉기(전,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 알프스의 희망 / 이영욱(강원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뢰 · 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고성의 정



고성군의회 의장
함영완

제8대 고성군 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

최근 우리군은 지난 4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506세대 1,190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496 채의 주택소실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림 936ha가 소실되는 등 2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 4월 8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성산불 피해지역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과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발송하는 등 산불피해 수습, 복구를 위한 현안 해결에 발 빠르게 앞장서 왔으며 고성군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관련하여 그간(18.7~19.6) 8대 의회가 이뤄낸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및 예산심사기능 강화

⇒ 조례안 심의 31 건(의원발의 조례 8건 포함), 예산심사 4 회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몇몇 조례를 나열해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명태 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농어촌 민박 지원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착한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년 지원 기본조례」, 「유해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투자유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사회복지, 일반행정, 투자유치, 경제진흥, 농수산발전,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가 제·개정된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담은 그릇으로 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결과이다.

한편, 예산안 심사는 2018 년 2 회, 3 회추경을 포함, 2019 년 당초 및 1 회추경까지 총 4 회에 걸쳐 추진하였는데 건전재정운영의 기조아래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생활 안정도모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성장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추진하였다. 관련하여 2019 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14 ,834 백만원(5.27%), 공공질서및 안전 8,621 백만원(3.06%), 교육 2,274 백만원(0.81%), 문화및관광 5,488 백만원(9.05%), 환경보호 27,645 백만원(9.82%), 사회복지 56,386 백만원(20 .02%), 보건 5,333 백만원(1.89%), 농림해양수산 45,881 백만원(16.29%), 산업·중소기업 6,645 백만원(2.36%),

수송및교통 0,624(3.77%), 국토및지역개발 25,353 백만원(9.0%), 예비비및기타 52,519 백만원(18.65%) 등 13 개 기능별 총 2 81,6 06 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감시기능 강화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건의 요구 240 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확인함으로써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추진사업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 요구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 5.22~24 일까지 3 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효과적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감사 실적을 살펴보면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1 개 부서에 대해 6.10~18(9 일간)까지 총 235 건(공통 10 건, 실과소·직속기관·사업소 217 건, 읍면 8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0 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건의를 요구했다.



3. 군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위한 감시 견제기능 강화⇒ 현지시찰 3 회/19 개소, 군정질문 2 회/12 건, 간담회 11 회

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점검이 매년 상·하반기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지난해 하반기(2 회) 12 개소, 금년도 상반기 7 개소 총 19 개소에 대한 현지시찰이 진행되었다. 그중 금년도 사업장 시찰현황을 보면 「고성지역자활센터 급식사업단」, 「복지커뮤니센터 조성」,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한해 종합대책 추진」, 「어촌 뉴딜(반암항복합남시공원조성) 사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등이다.

또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 조에 따라 정례회시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듣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에는 2 회에 걸쳐 5 명의 의원으로부터 총 12 건의 군정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제 293 회 고성군의회 제 1 차 정례회 및 제 294 회 고성군의회 제 2 차 정례회시 군수와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한편 의정활동의 협의 및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를 위하여 매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처럼 고성군의회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고성의정”이라는 의정 목표 아래 “견제와 균형”의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힘써왔다.

의회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라는 진리를 늘 되새기며, 모든 의사결정 시 군민 입장을 중심에 두는 군민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4월 산불 이재민이 대한민국에 고통



도의회
산불특위 위원장
박효동

지난 4월 4일 동해안 산불로 새로운 기록이 쏟아졌다. 주택 553채 소실과 850대의 소방차 동원 숫자는 그간 산불의 기록과 비교해 모두 최대, 최고의 애사(哀事)이다. 전문가들은 강원 동해안의 산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1804년 순조 4년에 큰 산불이 나서 2,600호가 불탔고 6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산불 기록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을 보아 유사 이래 이 지역에서는 큰 산불이 계속 있어 왔다는 주장이다.

이제 산불은 진화되었고, 5월 7일 기준으로 약 2,080억 원이 소요되는 복구계획의 틀이 발표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지역공공재의 복구에 약 85%, 주민의 자산회복에 약 15%의 재원이 배정되었다. 기존의 법·제도에 따르다 보니, 주민의 생업재개와 지역회복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이다.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이 있어왔고 그 복구사업은 중앙정부가 입안한 구상에 “지역의 수용”이라는 과정

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재난 복구 중 주민이 만족하는 전화위복의 좋은 사례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희소하다. 전문가들은 재난이 반갑지 않았던 만큼 복구 또한 상의하달(上意下達) 방식으로 “얼른 해치워야 하는 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산불피해지 만큼은 방법을 달리해야할 것 같다. 이미 ‘96년 고성산불, ’00년 동해안 산불 등의 복구에서 나타났듯이 아직도 산지생태계와 주민들의 생업은 회복과정에 있다. 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한요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를 전제하더라도 그 결과가 아쉽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과 기술로 정성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혹시 상의하달의 복구사업 추진으로 주민의견 반영이 충분치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다.

이제 다시 이번 산불 복구용으로 대한민국 관계부처에서 “산불 복구 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에는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을 함께하여 핵심사항 두 가지를 반영해야 한다. 첫째는 불가측의 미래 산불예방을 위해 산지와 도시의 종합적 산불방지 전략의 마련이고, 둘째는 단기소득 수단의 강구를 통한 주민의 생업복구와 지역 회생 전략 마련이다. 강원도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이에 헌신할 것이다.

”지금이 고성 관광 콘텐츠 발굴의 적기”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을 중심
으로 제도약의 기회 마련 ”



국회의원 이양수
(속초 · 고성 · 양양)
이양수

천하제일의 명산 금강산의 첫 자락과 푸른 동해바다의 넉넉한 품 속에 터 잡은 고성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예로부터 고성은 고기잡이로 생활을 영위하던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2015년 기준 강원도 동해 6개시·군 중 어가 및 어업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바다는 고성군민들과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으며, 고성인의 회로애락이 녹아있는 삶 그 자체였다.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점차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나 ‘위라벨’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서 국민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민들은 ‘일상 탈출’을 통해 삶의 재충전과 힐링을 얻고자 다양한 관광지를 찾고 있다. 국내 여행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6%, 2018년 58%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60%, 2030년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내륙 중심의 관광에서 현재는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킨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즐긴 관광객은 2015년 76만명, 2016년 108만명에서 2017년 115만명으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생계수단으로만 여겨졌던 바다는 이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해양관광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해양관광 개발계획은 독자적인 특성 내지 개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대동소이 했다. 또한 여름철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적 집중현상 때문에 나머지 계절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관광산업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각 지역의 독자적인 해양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별 특색을 덧 씌워 경쟁력 있는 해양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해양 관광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에게 해양관광의 매력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권은 근 10년간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 각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안권역으로 발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올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예상 여름 휴가지로 국민 10명 중 3명이 동해안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2018년 상반기 설악권의 관광객이 2017년 대비 26.5%나 증가하였고, 현재까지도 설악권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은 올해 4월까지 17만 53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 7,185명에 비해 61%나 증가하였다.

고성은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였지만,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었고,

인구유출도 많은 실정이다. 대한민국 최북단 도시로서 다가올 평화시대를 위해 차분히 준비해야 하지만,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금강산관광만을 바라보며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맞춰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 군(郡)으로서 실향민 문화와 특유의 어촌환경을 해양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고성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고정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관광 개발을 중심으로 고성군을 독자적인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는 매우 뜻 깊은 해였다. 2018 년은 고성군이 사계절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 ‘오호리 해중경관지구조성 사업’ 이 국내 최초 시범사업지로 지정되었고, ‘반암항 복합 낚시공원 조성 사업’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선정된 해양관광 콘텐츠들은 통일전망대, 고성 8 경과 같은 고성의 대표관광지와 ‘대문어축제’, ‘왕곡마을축제’, ‘수성문화제’, ‘해맞이축제’, ‘명태축제’ 와 같은 지역축제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고부가가치 명품 해양관광문화를 창출해내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

고성에는 해양관광교류 허브로서의 핵심추진 사업인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종합계획’ 과 연계하여 사계절 해양관광 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천혜의 섬 죽도 및 인근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6 종’ 과 그 외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수려한 해중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오호리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 은 고성의 특화된 청정해양환경을 이용한 체류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생존과 자립 경제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이자 고성의 훌륭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해중경관지구는 해양레저체험장, 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카약·카누 체험장과 다이빙 교육장, 해중공원 등을 설치하여 해양레저시설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비위축,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등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관광콘텐츠 기반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암항 복합 낚시공원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을 활성화하여 침체된 어촌 지역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총 300여 곳에 2조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의 대형프로젝트이다.

그간 고성은 해양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에 제약사항이 많아 대규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왔다. 특히 반암항은 2007년 완공된 어촌정주어항이지만, 항내매몰현상으로 어항기능 유지 어려움과 소규모항으로서 활용성이 떨어져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반암항 복합 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바다낚시공원, 전망대, 은연어 순치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이 완성되면 반암항이 일반적인 어항에서 탈피하여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광객 유치가능 해져 관련 업종의 소득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복합관광시설로 변화될 것이라 기대

한다.

2018년 고성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 군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관광, 여가, 위락시설 확충’ (37.0%)을 뽑았다. 그만큼 현재 고성에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은 모든 고성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미래 희망 심기 프로젝트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중요하다. 작년에 선정된 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사업들에 고성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 또한 조속히 통과 되어 해양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올 남북 평화시대에 발 맞춰 ‘동해 북부선 연장’ 등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정책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모든 힘을 집중할 때이다.

고성의 지역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고성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고성의 눈부신 재도약을 지켜볼 날이 머지않았다.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관광!



(전)강원도
행정 부지사
한봉기

강원도 고성은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바다 호수가 있는 청정의 고장이며, 금강산관광의 출발지로 알려져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다녀오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성군 인구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30,749명, 2017년말 30,871명, 2018년말 29,118명, 2019.5.월말 현재 27,649명으로 심리적 희망 저지선인 3만명 아래로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 수 및 종사자를 보면 2014년 경우 2,666개소 10,110명, 2015년 2,701개소 10,514명, 2016년의 경우 2,804개소에 10,723명, 2017년 2,878개소 11,957명을 보여 주고 있다. 지역총생산의 경우 2014년 7,490억원, 2015년 7,870억원, 2016년은 8,200억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고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편 관광객 방문객수를 보면 2013년 319만명, 2014년 284만명, 2015년 340만명, 2016년 330만명으로 300만명 초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지역총생산, 관광객 등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 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지역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진흥되고 관광수입도 늘어나며, 지역에 정주하여 터 잡고 살아가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자원만 하더라도 울창한 송림병풍의 호수 화진포, 송지호 그리고 명품 해변들, 백두대간을 이어달리는 마산봉, 신성봉과 울산바위, 계곡이 아름다운 진부령유원지, 장산리유원지, 장엄한 고성 앞바다 일출, 천년의 고찰 건봉사, 청간정, 청학정, 화진포의 성, 분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대, 6.25 전쟁체험전시관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고성군에서는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을 군정구호로 정하고 문화관광을 특화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에 큰 기대를 하게 된다. 고성군은 2019년도 당초 예산기준 예산규모는 3,007억 원이며, 고성군의 재정규모 대비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9.41%로 서 전국 82개 군(郡)지역 평균인 18.26%의 절반 수준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D 해양모험센터 건립,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 북한음식전문점 개설 등 고성만의 특색 있는 관광체험시설 확충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개인이던 기업이던 지역이던 간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여, 힘을 집중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간략히 고성군의 관광분야에 대한 **SWOT 분석**을 해보면, 고성군의 **강점(S)**은 지역전반에 걸쳐 산, 바다, 호수, 공기, 경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두대간과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들의 열의와 애향심이 높은 점등을 들 수 있다. **약점(W)**으로는 낮은 재정자립도, 대표관광 브랜드와 관광거점의 부족, 지역인재육성시책의 부족함 등을 들 수 있다. **기회(O)**측면에서는 산림치유 등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체류형, 체험형, 실버형, 여가 휴양문화 수요 증가 등 관광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방문객 수의 증가,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 교류의 거점이라는 기회를 지니고 있다. **위협(T)**의 요소로는 관광객들의 기대 수준 향상,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환경규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고 싶다.

“ 우리 국민들 에게 고성은 반드시 가보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는가? ”

“ 고성의 주요 관광자원은 다른 시도, 시군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가? ”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고성의 대표관광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

어느 지역이 관광요소로 호응이 좋다고 하면 다소의 시간 차이를 두고 전국으로 동일한 유형의 시설이 설치되거나 아이템이 운영된다. 짚라인, 유리다리(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케이블 카, 산책길

등등의 아이템들이 거의 어느 관광지나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일반화 되어간다. 한편 관광객들은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관광형태를 많이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았기에 웬만한 것, 고만고만한 규모의 것에는 큰 감흥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지역에서만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선호하게 된다. 우리 지역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지역의 독특성을 반영한 관광끼리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화진포는 그 둘레만도 16km에 이르고, 주변에는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동양 최대의 자연석호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봄이면 해당화, 겨울이면 고니와 청둥오리 등 수 많은 철새들의 도래지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100년이 넘는 금강송이 이어지는 산책길은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술관 정도가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다. 나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자연미나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에 세계자연유산 지정방안도 검토하는 등 고성군의 대표관광 포인트로 더욱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관광 소프트웨어를 구비 하는 일은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숙박시설, 교통망 정비, 사찰 정비 등 관광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와 균형을 맞추어 나갈 일은 관광의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친

절은 관광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래야 다시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고 단골손님을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입소문이 전파되어 기대를 갖고 찾아오는 것이라 하겠다. 바다의 고장에서 관광객들이 아침식사를 위해 매운탕을 먹으려 해도 숙소 가까이에 서 식사를 할 장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관광객의 식사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침 식사장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공급(항상 오픈해 아침식사가 가능한 식당)이 수요(관광객의 수용)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일정기간 지속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육성에 관심을 쏟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바탕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은 직접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소관이라 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이 떨어지거나 지원이 미흡하기 쉬운 상황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진학은 지역 내 거주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귀농귀촌하는 경우에도 정착지로 선택할 기준을 삼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9.7.1. 현재 고성군 관내에는 초등학교(13 개교), 중학교(4 개교), 고등학교(4 개교)가 있으며, 고등학교(고성고, 거진정보공업고, 대진고, 동광산업과학고) 경우 모두 503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미래의 고성을 이끌고 나갈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점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교육부문에 고성군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집중 지원 하여 진학과 취업의 선도적 모델학교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고성발전의 견인차인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신경을 쓰자.**

기업이던 행정기관이던 간에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조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작품이 구상되어지고, 일이 성사되고, 그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번영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능력과 심성을 가진 사람 등을 채용하고, 나날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능력을 키워 나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성군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게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외 전문 기회, 국내외 대학, 연수원의 연수기회를 가지는 일, 특히 고성군과 중앙부처 또는 강원도와의 인사파견은 당사자가 새로운 인맥 형성과 경험을 체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 지역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니어 관광, 단순 명소 관람 이외에 역사, 문화 예술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특수 목적 관광, 나아가 자연 그 자체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생태관광, 체험관광, 체류관광, 나홀로 여행 등 관광의 추세 흐름을 읽고 그것에 부응하는 태세를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강원도 고성이 관광부문에서 우뚝 일어서서, 국내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약력

- 행정고시 제 22 회(1979 년)
- 강원도 행정부지사, 산업진흥국장, 산업통상국장, 기획관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안전정책관,
홍보관리관, 총무과장, 교부세과장.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 공공혁신국장,
-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 현, 경동대학교 석좌교수

알프스의 희망



고성교육지원
교육장
이영욱

필자는 학군 장교출신으로 80년대 초 군대 생활을 육군 제12사단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다. 근무한 곳은 고성군 관내인 진부령의 향로봉대대에서였다. 진부령에 상주하면서 3개월 주기로 향로봉 정상경계업무를 하고 홀리에 있는 대공초소 경계와 운용을 위해 종종 홀리지역에 파견이 되기도 하며 군대생활을 했다.

당시 홀리지역에는 「알프스 스키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겨울철이 되면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이 스키를 타기 위해 고급 스키복과 장비를 갖추어 돈을 내며 찾았고, 군복을 입은 장병의 입장에서 부러움 가득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던 추억이 아스라하다. 시대 상황으로는 스키가 귀족 스포츠로 여겨지던 때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 체육교사가 되어 겨울철 동계연수를 받기 위해 알프스 스키장을 찾기도 했다. 군복무 시절 당시에는 건립되지 않았던 콘도가 근사하게 들어섰고 마치 유럽의 알프스에 와 있는 듯한 겨울 풍광에 취하기도 했다. 스키가 겨울철 스포츠로 점차 일반화되면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알프스 스키장은 설질이 좋아 많은 스키 마니아들이 북적거렸다.

다시 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난해 교직생활의 끝자락에 고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부임해 왔다. 고성교육지원청 관할지역 학교인 광산초등학교 홀리분교장을 방문하기 위해 홀리를 찾았다가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해야 했다.

홀리 마을은 그대로 있었지만 「알프스 스키장」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콘도 주변은 잡풀이 우거져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스키장의 슬로프도 이제는 잡목이 자라 흔적만 겨우 남아 있고 스키를 타기 위해 타고 오르던 리프트가 동작을 멈춘 채 이곳이 역사의 현장으로 스키장이었던 곳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었다.

도로 주변에 스키 렌탈 가게의 빗바랜 간판이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현 건물 한 칸에 세워져 있는 모습도 이곳이 한때 영광을 누리던 스키장이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십 명의 어린학생들이 북적거리던 홀리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급감하여 분교로 격하되었고 곧 폐교 위기에 처할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이 배가됐다.

자연설로 스키장을 운영해야 했던 시절 각광받았던 알프스 스키장이 인공설의 다른 지역 스키장에 밀리고, 교통의 발달로 고속도로 주변의 스키장이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접근성 면에서도 밀려야 했던 모양이다.

2018년 열렸던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도 알프스 스키장은 서럽게 외면 받아야 했다. 지형적으로 보면 올림픽경기의 설상 종목 중 노르딕 스키와 스키점프 그리고 썰매경기장 등이 들어섰더라면 좋았겠다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선수단의 참여와 일부종목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평화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평화의 상징인 고성지역의 알프스 스키장에서 올림픽경기가 치러졌다면 평화올림픽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남는다. 물론 평창까지 와의 거리 문제로 올림픽 경기장이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우리나라의 첫 스키장이라는 점에서 알프스 스키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스키장이라고 생각한다. 스키장의 존재 그 자체가 곧 역사이며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어떻게 하든 알프스 스키장의 기능을 살려 유지해야 한다.

다만 스키장 만으로의 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홀리지역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골프장과 물 그리고 자연 산림자원을 이용한 사계절 관광휴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진부령계곡과 소동령마을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장차 남북 화해무드의 발전 과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평화의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산 상봉 면회객들과 금강산 관광객들이 머물렀다가는 중간지점의 휴식처로 만들 수 있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입소문만 타면 몇 시간이 걸려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천군 내면의 은행나무 숲이다. 가을만 되면 불편한 산골 도로가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넘쳐난다. 결국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먹을거리의 테마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연 친화적이면서 현대인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가 있어

야 한다.

하지만 도로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인제군 원통에서 용대리까지는 4 차선으로 되어있으나 창바위 부터 진부령까지는 2 차선 도로라 4 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행정구역상 이곳은 인제군에 해당 되므로 강원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향로봉 정상에서 홀리 지역 일대를 바라보면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알프스 스키장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분지가 넓고 안정적이다. 현재는 홀리 지역주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으며 고랭지 채소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알프스 스키장이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 받게 되면 동해안까지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된다. 따라서 동해안 관광과 웰빙 그리고 힐링 휴식 공간으로서의 입지가 최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장차 통일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더라도 알프스 스키장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각종 레저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기울인다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예컨대 레저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명 그룹은 전국적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 콘도를 짓고 휴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알프스 스키장이 살아나 옛 영광이 재현되길 간절하게 기원한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경기가 활성화되어 고성 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고성의 관문 진부령에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득하다.

기획특집

| 고성지역의 고문서 / 김광섭(향토사학자)

| 2019 장승문화축제 “장승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 김장민(고성문화원 사무국장)

고성지역의 고문서

향토사학자

김광섭

I. 머리말

고성군은 1945년 해방과 아울러 공산치하북한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6.25 전쟁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가전문서의 보전이 어려웠다. 또한 남아 있던 문서들마저도 근래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이 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존하는 고서나 고문서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문중에서 귀중하게 보관해오던 고문서를 고성문화원에 기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성문화원으로부터 고문서를 접하게 되었을 때 기쁨과 두려운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였다. 우선 기쁨 마음은 흔하지 않은 탓으로 지역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점으로 하나는 순한문으로 이루어진 고문서를 천학비재 실력 가지고 해독이 가능할지 의문점이다. 본래 국역하다는 것이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환경의 절대적 이해가 없으면 단순한 문자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보는 이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자신이 없어 선뜻 나설 수 없는 망설임이 있었기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세 더 훌륭한 학자가 바로 잡을 것이라 믿고 기록해 보고자 한다.

이 문건은 소장자로부터 총 41건의 고문서와 고서적으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살고 있는 강릉 박씨 문중에서 보관해 오고 있던

자료로서 시대는 1883년 이후부터 1943년 이전의 친척으로부터 주로 주고받은 편지 내용과 한 가정에서 금융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증서 및 고서들이 대부분이다. 1차와 2차로 나누어 자료를 선별하여 기록하였다. 이번 1차 내용물은 일제강점기 무렵의 생활사의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일상적인 이야기 담은 장례 의식 절차와 혼례의식 기록한 내용이 언급하고 있는데 고성지역의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성이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호적등본은 한국전쟁 이후에 고성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지금의 호적등본과 일치하고 있으며 1954년 수록 후에 새로 작성하면서 지금과 다소 차이점이 보이고 있지만 규격 방식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I. 강릉박씨(江陵朴氏) 가계

호적등본(1938년 3월 11일)에 따르면 박계일(朴啓逸) 원적은 강원도 간성군 토성면 장흥리 2통 9호에 살았으나 1919년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 인흥리 255번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1847년 7월 1일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부인의 존함은 이전주(李全州)라고 하며 두 분 사이에서 장남 박기익(朴基益)이 1869년 5월 9일에 태어났고 1903년 2월 13일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 장흥리(長興里, 현재의 인흥) 2통 8호에 사는 탁인보(卓仁甫)의 장녀 광산(光山)과 혼인하여 이 사이에서 장남 운학(云學)과 장녀 운성(云成)을 두었다. 부인의 생년월일은 1871년 10월 13일생이며 자식인 운학은 출생년도는 1906년 11월 16일에 태어났으며 운성은 1908년 2월 17일생이다. 운학은 1927년 7월 4일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 장천리(章川里) 167번지 주소를 두고 있는 봉화 정씨인 정연이(鄭然伊)와 결혼하여 영숙(永叔), 영환(永煥), 영빈(永彬), 영해(永海)를 포

함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운학의 처 정연이는 생년월일은 1911년 3월 15일생으로 이중에서 후손 장녀 영숙은 1928년 2월 16일생이며, 장손인 영환은 1930년 12월 25일생이다. 이 기증 문건을 통해 고성지역의 고문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1〉 호적등본戶籍謄本/40×27cm

Ⅲ. 문건의 종류

1. 교령류(敎令類)

교정류 문서는 교지(敎旨), 칙명(勅命), 차첩(差帖) 등이 있다. 교지란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

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 등을 내려주는 문서를 말한다. 관료에게 관직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의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를 백패(白牌)라고 한다. 이외에도 죽은 사람의 관직을 올려주는 추증교지(追贈敕旨), 향리의 면역(免役)을 인정하거나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사패교지(賜牌敕旨) 등교지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조선 초기에는 교지를 왕지(王旨) 또는 관교(官敕)라고도 하였고,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도2> 칙명 勅命 / 60×50cm

융희(隆熙)2년(1883, 순종2)2월5일에 박기 익(朴基益)에게 9품 종사랑(從仕郎), 중학교교관(中學校敎官)겸 중추원(中樞院)의관(議官)에 임명하고 주임관하고주임관(奏任官)6등으로 올렸다.

2. 증빙류(證憑類)

수표(手標)는 사족(士族)이나 평민, 또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층의 사람들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를 말한다. 이 문서는 박씨 문중에서 대를 이어 길러온 소나무를 베어 300 여 금을 받고 팔아서 그 억울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民願)에 관한 문서임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도3> 수표手標/32×54cm

① 광서 6년(1880년) 8월 초6일 박계일(朴啓逸)앞 표문(標文) 위 표기(標記)는 인각(隣角)의 전후좌우는 모두 박씨(朴氏)가 대를 이어 타인의 접근을 금하고 길러온 소나무인데, 인각동 백성이 함부로 침범해서 산비탈 한 곳 몇 만그루의 아름드리나무를 모두 베어서 대신 300여 금을 받고 팔았다. 그러므로 박씨 양반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송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네백성이 여러 번 애걸 하였고, 동네 뒷산에서 기르고 있는 소나무 절반을 대신 준다는 뜻으로 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일후에 잡담이 있거든 이 표기(標記)에 근거해서 살펴볼 일이다.

동중 대표(洞中頭民) 장상순(張尙順)

박수식(朴秀植)

필집(筆執) 최태현(崔泰鉉)

3. 통보류(通報類)

통보류 문서에는 망기(望記)는 삼망(三望)을 벌려 적은 단자로 조선시대에 궁중을 비롯한 종묘(宗廟) 사직(社稷) 성균관(成均館)은 물론 지방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 문중(文中)에서 중요한 직책이나 행사의 중요한 직책이나 행사의 중문서이다. 추천하는 것은 천망지(薦望紙)라 하고, 선임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통보서를 망기(望記) 또는 망지(望紙)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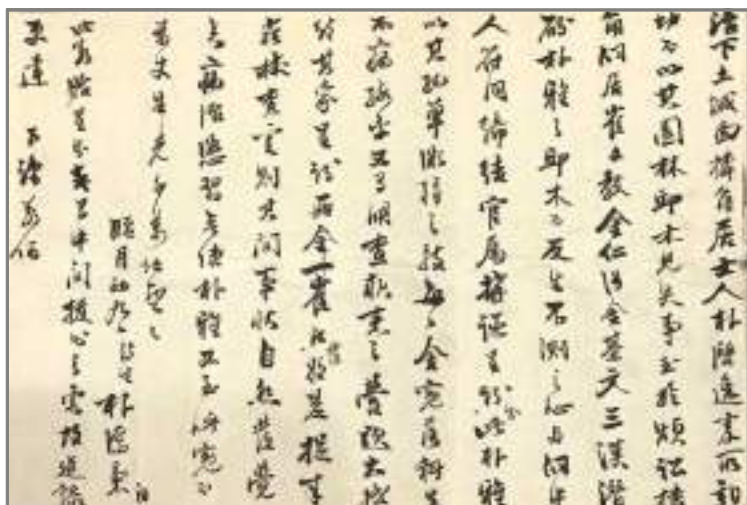
〈도4〉 망기(望記)/30.5×26.5cm

① 석전의 석(釋)은 놓다(舍) 또는 두다(置)라는 뜻을 지닌 글자로서 베풀다 또는 차려놓다라는 뜻이다. 전(奠)은 상형문 자로서 추(酋)는 술병에 술을 담아놓고 덮개를 덮어놓은 형상으로 빚은 지 오래된 술을 의미하며, 대(大)는 물건을 얹어두는 받침대의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는 정성스레 빚어 잘 익은 술을 받아들여 올린다는 뜻이다.

석전은 정제(丁祭), 또는 상정제(上丁祭)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석전을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두 차례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을 택하여 봉행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임인년(壬寅年, 1962) 정월 15일 유학 박태우(朴泰佑)를 석전대제동무(東廡) 제관으로 추천한다는 망기이다.

4. 서간류(書簡類)

서간(書簡)은 상대와 의사 전달이나 감정 교류를 하는 실용문장으로 서찰(書札), 간찰(簡札), 서독(書牘), 거한(書翰), 혼서(婚書) 등 그 명칭도 다양하다. 또한 문목(問目)과 별지(別紙) 등을 첨부하여 학문과 시국(時局)을 토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문예미(文藝美)를 척독(尺牘)이 유행하였다. 간찰의 내용에 따라 평상의 서찰(書札)과 혼서(婚書), 상중(喪中)에 보내는 소장(疏狀) 등이 있고, 형식과 크기에 따라 보통의 서찰(書札)과 비교적 짧막한 단찰(短札), 척도(尺牘) 등이 있는데 조선후기 경화(京華) 관료의 중심으로 대형화되었다. 형식적 구성은 내지, 별지, 파봉 외피로 구성되고, 봉함에 따라 지봉, 단봉, 중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간찰의 내용은 서두(書頭)와 사연(事緣), 결미(結尾), 일자(日字), 서명(署名), 추신(追伸)이 있고 경우에 따라 별지(別紙)나 문목(問目)이 추가된다. 간찰은 개인이나 문중, 박물관, 도서관에 낱장이나 첩(帖), 축(軸)으로 보존되어 산재한다. 그러나 간찰은 대부분 행·초서로 표기에 있기 때문에 한학에 대한 소양과 초서(草書) 해독 능력이 없으면 접근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찰은 역사를 실증하는 단서나 사료 제공하기도 하고, 공간(公刊)된 문헌에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거나 서예사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기타 기록류 문서에는 찬문(贊文), 장과(葬課), 발원문(發願文)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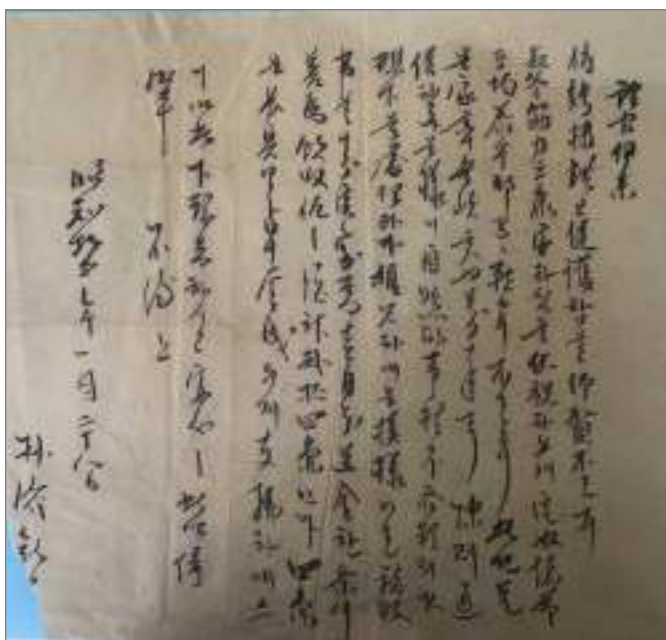


<도5> 간찰簡札/39.5×25cm

① 다스리는 토성면(土城面) 인각(隣角)에 거주하는 사인(士人) 박계일(朴啓逸)은 평소 매우 절친한데, 원림(園林)의 구목(邱木)을 잃어버린 일로 번거로운 송사에 이르렀습니다. 인각동(隣角洞)에 거주하는 최문교(崔文敎), 김인여(金仁汝), 김기문(金基文) 세 사람이 몰래 박씨(朴氏)의 구목을 잘라버리고 도리어 음흉한 마음이 생겨나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관아의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무고하게 엮어매 하소연하니 이 박씨(朴氏)는 홀로 미약하게 매일 원통함을 호소했지만 소송에서 졌습니다. 어찌 원통하고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명쾌한 조사가 있었고 감영(監營)의 제사(題辭)가 있었는데, 대개 그 집의 소장을 기다려 두 김씨(金氏)와 한명의 최씨(崔氏)는 즉시 나줄을 보내 잡아들이고 엄히 매를 쳐서 사실을 조사하라고 하니, 그 사이의 일의 정황이 자연스럽게 발각되었습니다. 아픈 통치와 나쁜 관습이 박씨(朴氏)에게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또한 원통한 하소연에 이르게 하였으니 더욱 빛

이 나니 천만번 바랍니다. 이는 초벌 소장이므로 간혹 중간에 마
음을 고쳐먹은 것이 있으므로 추가 기록해서 다시 보냅니다. 깊이
헤아려주심이 어떠합니까.

납월(12 월) 초9 일에 시생 박제병(朴濟秉) 삼가올림



〈도6〉 편지便紙/39×27cm

② 삼가 요사이 이래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히 지켜 오심을 우러러
축하하니 끊이지 않습니다. 숙부께서 기력이 건강하고 평안하시다
고 하시니 엇드려 축복합니다. 댁내 모든 일은 고루 평안하니, 근
래 안부는 어떠합니까. 요즘 형님 집은 다행히 무탈합니다. 만약
받은 것을 빌릴 수 있는 모양이 자연적으로 사리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다가 그만두는 모양이면 제반 일을 심분하여 실가(實家)는 12월 몫을 송금한 조건을 바로 영수합니다. 아래는 총계 외 14조 이하 4조는 오랜 기간 이미 이루어 지불 하였으니 이로써 아래 낙점하실 것입니다. 이를 갖추어 쓰니 이만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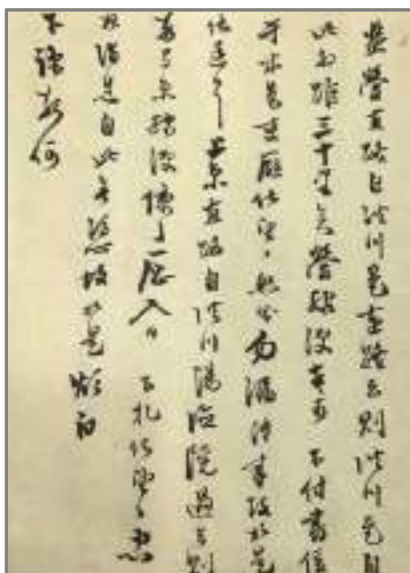
소화 7년(1932년) 1월 28일 박제병(朴濟秉)



〈도7〉 편지便紙/42×20cm

③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감회에 긴 물결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새해에 몸 건강히 만사가 평안합니까?
삼종형주(三從兄主)는 수시로 만사가 평안하고 집안도 길하니 우러르고 축하할 만합니다. 삼종 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두 무고하니 이는 천만다행입니다. 아들 영환(永煥)은 바야흐로 지금 보교(普校)로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에 호적을 베낄때에 물고기를 편지를 본 후 즉시 보내주길 천만번 바랍니다. 이곳에 입적한 후 다시 베껴서 신청하고 나서 이 편지를 보는 즉시 물고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나머지 예는 생략합니다.

기묘년(己卯年, 1939) 정월 초8일 삼종매(三從妹)
운학(云學) 삼가 씀



<도8> 간찰簡札/20×26cm

④ 감영(監營)으로 곧장 가는 길은 홍천읍(洪川邑) 동쪽 길에서 부터 라고 하는데, 홍천읍은 여기에서 거리가 30 리입니다. 감영의 역리가 간혹 편지를 본읍(本邑)의 이청(吏廳)에 부치면 그것을 바라다가 받 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삼가 아웁니다. 상경하는 곧바른 길을 홍천 양덕원(陽德院)으로부터 지나간다면, 서울로 가는 역리들 이 편안히 사용할 것입니다. 편지를 드리니 삼가 보십시오. 충성스런 노비 초인(消忍)은 이로부터 기댈 곳이 없어서 이같이 번거롭게 아웁 니다. 살피주심이 어떠합니까.



〈도9〉 편지便紙/19×22cm

⑤ 삼가 아우에게 안부를 묻다.

오랜동안 보지 못한 여운에 이번에 군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새해의 첫머리에 종숙주(從叔主)께서는 기체가 평안하고 건강하시다고 군의 편지 구절 한 부분에서 말하니 기쁜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종형(從兄)은 한결같이 잘 지낸다. 지금 감히 조카 아이놈 영환(永煥)의 호적초본(戶籍抄本)을 보내니, 바라는 바는 입학하도록 주선해주시게. 작년도에 종숙주께옵서 교외의 땅에 행차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족보 1질 여유분을 갖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것을 갖고 있는지 함께 찾아봤는데 둘째동생(次弟) 익대(翌大)가 급하게 답장하였는데, 즉시 만군(萬君)의 족보 1질이 오히려 지금 있다고 하였다. 대금을 즉시 우편으로 보냈으니 모쪼록 하루

빨리 당기를 바란다. 나머지는 생략한다. 편지를 보낸다.

기묘년(1939년) 정월 4월 중형(從兄)
박정현(朴丁炫) 군께 박운학(朴云學) 삼가 씀



<도10> 장례문기 葬禮文記/85.5×62.5cm

⑥ 곤좌(坤坐) 언덕 묘지 택일(山擇) 곤괘(坤卦)가 선명(仙命)하니
을묘생(乙卯生) 손궁(孫宮) 주제(主祭,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자부
(子婦) 을묘생(乙卯生) 자궁(子宮) 손자 계해생 태궁(兌宮) 손자(孫
子) 갑인생(甲寅生) 둘째 아들 신사(辛巳) 며느리 정해(丁亥) 손자
(孫子) 계미(癸未) 손자며느리 신해(辛亥) 증손(曾孫) 경오(庚午) 셋

째 아들 무자(戊子) 며느리 신묘(辛卯) 손자(孫子) 갑인(甲寅) 손자
 며느리 계축(癸丑) 넷째 아들 무진(戊辰) 며느리 병신(丙申) 손자 경
 오(庚午) 옛 묘를 파냄 7월 초8일 오시(午時) 먼저 인방(寅方)을
 파낸다. 묘를 옹(開山) 7월 18일 인시(寅時)에 먼저 진방(辰方)을
 연다. 하관(下玄) 같은 날 신시(申時)가 크게 길하다. 취토(取土, 길
 방(吉方)의 흙을 퍼서 광중의 네 모서리에 넣는 의례) 신유(辛酉) 방
 향이 더욱 좋다. 물길을 옹 유방(酉方)이 최고 길하다. 제사를 주관
 하는 사람이 불길한 곳 묘방(卯方)이 극히 해롭다. 꺼려야 할 사람들
 계묘미(癸卯未)에 태어난 사람들 무덤 깊이 3 척(尺) 8촌(寸)택일 날
 짜(日課) 임신 금, 무신 토, 임자 목, 무신 토, 임인 목 변수(變數)
 무인 토, 갑인 수, 무오 화, 갑인 수 무국(戊局) 병술 토, 임술 수,
 병인 화, 임술 수택일 날짜를 논함 날마다 구석구석 비추니(日日照
 辟), 백가지 끝마다 재주가 들어갈 것이네(百末才入). 태어난 별자리
 에 이르니(生門到座), 재물이 집에 가득할 것이네(財朴滿堂). 한번
 낚시질로 두 마리를 낚으니(一釣雙魚), 다만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
 네(但得貴子). 덕성(德星, 목성)을 다시 만나니(德星再逢), 부와 귀
 함이 겸하여 온전할 것이네(富貴兼全). 물의 기운이 목의 운격에 있
 으니(水氣木格), 조금씩 길해질 것이네(未未爲吉). 삼년을 지나지 않
 아서(不過三年), 길함이 가정에 가득할 것이네(吉滿家庭).



〈도11〉 장례문기葬禮文記/37.5×57cm

⑦ 경태용(庚兌龍)이 축간(丑艮)에서 고개를 돌려 축(丑)에서 입수(入首)하니, 간좌(艮坐)는 신득(申得)하고 손파(巽破)한다. 곤괘(坤卦)가 선명(仙命)하니 계사(癸巳)는 수(水)이고, 정운(正運), 달에 맞춘 운세(은 기미(己未) 화(火)이고, 홍운(洪運), 홍범오행(洪範五行)으로 따져 본 장사 연운(葬事年運))은 갑진(戊辰) 화(火)이다. 운(運)이 왕비궁(旺比宮)에 머무니 술토(戌土)가 사령(使令)하고, 조금 이익이 있다. 참파토(斬破土, 무덤 쓸 곳의 풀을 베어내고 땅을 파냄) 2월 21일 묘시 먼저 오방(午方)을 연다. 개금정(開金井,

관을 묻기 위해 땅을 파냄) 육신일(六申日)을 조심한다. 혈심(穴深, 무덤구덩이 깊이) 흙의 고르기를 따른다. 파빈(破殯, 관을 내기 위해 빈소를 엮) 장례 전날 오시(午時)먼저 오방(午方)을 연다. 발인(發靚, 상여가 빈소(殯所)를 떠나 묘지로 향함)상황에 따른다.[隨時] 정구(停柩, 상여(喪輿)를 내려놓고 머물러 쉬) 곤손방(坤巽方)을 조심한다. 안장(安葬, 고이 장사지냄) 2월 27일. 하구(下柩, 관을 내림) 신시(申時). 취토(取土, 길방(吉方)의 흙을 퍼서 광중의 네 모서리에 넣는 의례) 갑경(甲庚) 방향. 불복(不伏, 불길한 방향) 사오미(巳午未) 방향. 호충(呼沖, 일진과 맞지 않은 사람) 을해(乙亥), 정해(丁亥), 병오(丙午), 임오(壬午)년 등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관 때에 잠시 피한다. 형국(局), 날짜 계묘 금, 을묘 수, 임자 수, 무신 토. 주상(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아들 을묘생, 신유생며느리 임신생, 아들 을사생, 며느리 신미생, 손자 계사생, 무술생, 임인생



<도12> 혼례 婚禮/36×26cm

⑧ 곤(坤) 패는 토(土)이다.

건(乾) 갑진(甲辰), 곤(坤) 기유(己酉), 초관(初冠) 이미 치룸[已過], 납폐(納幣, 폐백을 들임) 수시로 함[隨時], 전안(奠鴈, 신랑이 기러기를 갖고 상에 올리고 절하는 예) 정월 11 일 갑자 사시(巳時) 좌향은 오정방(午丁方), 우귀(于歸, 결혼한 신부가 시집에 들어감) 같은 날. 들어가는 방향, 좌향은 위와 같음. 주당(周堂, 꺼리는 살) 남자 쪽에서 붉은 글씨로 주당(周堂) 2 자를 써주고 예를 행할 때에 신랑의 좌측 옷자락 가운데 들이고 예를 행하는 것이 옳다. 서로 맞 절 후에 신랑은 인묘방향(寅卯方)을 밟지 아니하고, 신부는 신유방향(申酉方)을 밟지 않는 것이 옳다. 그 다음날 화촉(華燭)을 밝힌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11 건의 고문서는 고성군 토성면 인흥 2 리에 사는 강릉 박씨(江陵朴氏) 문중에서 나온 문건으로 후손 중에 춘천(春川)에 살고 있는 김봉래씨가 고성문화원(高城文化院)에 기증하게 되어 고성문화 8 호(號)에 수록하게 되었다. 이 기증한 문건은 개인적인 생활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당시의 생활사,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문건 총 41 건이다. 위에서 살펴 본 문건 외에도 고서로는 강릉박씨 족보 1 질, 이백(李伯)의 오언시, 동몽선습(童蒙先習), 당시(唐詩) 필사본을 비롯하여 사주(四柱), 차용증서, 증여문건, 현대 납세증명서 등이 있다. 1차적으로 지면을 통해 일부만 기록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고성문화 9 호(號)에 수록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짧은 실력으로 기증한 이 문서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개인적으로나마 기쁘다. 한편으로 번역상의 오류가 발견하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고 고평과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정리해 본다.

2019 장승문화축제 “장승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김장민

2019년 10월 31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고성 금강산 대장군과 청양 칠갑산 여장군의 장승혼례가 이뤄졌다. 높이 5m, 지름 1.2m의 청양 칠갑산 여장군과 고성 금강산 대장군의 장승혼례는 이경일 고성군수, 함형완 의장,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및 임원과 회원, 임호빈 청양문화원장과 청양문화원 임원과 회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승문화축제는 “장승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재앙과 악귀를 막고 소망을 하늘에 전하려 했던 우리고유의 민속신앙이자 마을공동체를 지켜온 수호신으로 현재, 우리 민족이 당면한 평화통일염원을 장승을 통해 갈구하고 통일의지와 분위기를 전국민에게 확산시키며, 장승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콘텐츠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성 금강산 대장군과 청양 칠갑산 여장군

이번 행사는 고성 금강산 대장군과 청양 칠갑산 여장군이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성군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성 군의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 랜드마크와 축제를 즐겨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장승 제막식은 주기창 고성문화원장과 임호빈 청양문화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경일 고성군수의 축사, 함형완 고성군의회회장의 축사, 간성향교 주관으로 장승전통혼례가 이어졌다.



제막식1



제막식2



전통혼례1



전통혼례2



전통혼례3

주기창 고성문화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재앙과 악귀를 막고 소망을 하늘에 전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 이자 수호신으로 현재 우리민족이 당면한 평화통일 염원을 장승을 통해 갈구하고 통일의 의지와 분의기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장승축제로 불거리 제공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개회사

임호빈 청양문화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는 작은 국토가 양단되어 한 동쪽끼리 갈등과 냉전속에서 살아가는 참혹한 현실을 타개하면서 다시는 이땅에 6.25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돌아오지 않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장승훈례식을 올리고 있다.” 라고 말했다.



임호빈 청양문화원장 개회사

이경일 고성군수는 축사에서

“이번 장승훈례식을 통하여 고성군과 청양군이 문화교류가 지속 되길 바라고 군민 모두가 통일여장군, 대장군의 훈례 식을 계기로 군민 모두가 무병장수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 축사

함형완 고성군의회 의장의 축사에서

“은 국민이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바래 오던 장승이라는 문화재 매개체 역할을 통하여 핵과 무력이라는 재앙에서 보 호해주고 DMZ 구역이 관광특구 지역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함형완 고성군의회의장의 축사

제막식이 끝나고 아리아리 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청양문화 원 농민가수 명형철 이사가 민요 “가시버시사랑”을 불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리아리예술단 축하공연1



아리아리예술단 축하공연2



농민가수 명형철이사(청양군문화원) 민요공연

한편 장승문화축제는 강원 고성문화원과 충남 청양문화원 의 공동사업으로 지난 3월 12일 고성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4월 14일 제21회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에서 고성군의 금강송으로 만든, 통일 대장군과 청양군의 칠갑 산 소나무로 만든, 통일 여장군을 4월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장에서 혼례를 진행했다.



제21회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축제1

우리 고유 민속신앙, 마을공동체를 지켜온 수호신 장승!

“장승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시작한,

“2019 고성군 장승문화축제”

앞으로 고성군 통일 전망대에서 우리 민족 평화통일염원을
갈구하는 상징으로, 동시에 고성군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랜드마크
로서의 당당히 자리 메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핫이슈 (제언)

- | 왜 우리고성은 발전이 더딜까? / 함종득
- | 나의 살던 고향은? / 최삼규
- | 태백산의 정기 / 최기종
- | 평화만이 우리민족의 살길 / 권성준

왜 우리고성은 발전이 더딜까 ?



함중득

고향을 떠난지 40 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설날 추석 등 명절과 부모님 기일에 고향을 찾아 갑니다. 항상 내 마음엔 영원한 고향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가 태를 버리고 묻힐 곳은 고성입니다. 진부령을 수없이 넘나들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 고성은 발전이 더딜까?” 기자생활을 32 년동안 하면서 새천년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강원도 18 개시군 187 개읍면동 2177 개 마을을 2 년동안 살살이 답사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성 5 개 읍면이 132 개리(현재는 128 개리)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고성에 살면서 제가 가 본 마을은 고작 15 개 마을 정도였으니 고향도 제대로 모르는 “고성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성과 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이 비슷한 이른바 접경지역 군(郡)이 4 곳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입니다. 이 지역과 고성을 비교하면 제 생각으로는 비교가 안되게 고성이 월등하게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고성을 포함한 5 개군 인구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 년대 들어서서 발전 속도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군수의 리더쉽과 비전, 의지가 확연하게 다름을 갈 때마다

다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관찰하는 이유는 나의 고향 고성과 비슷한 여건 속에 이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만 제언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발 군수로 출마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약으로 고성 인구를 5만~7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망언 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현 지자체 중에 없어지는 군(郡)이 몇개인 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마을이 수두룩한 현실을 모르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군수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우선 조건이 인구인 것은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타지 사람에게 “고성이 살기 좋으니 은퇴한 후 고성 가서 살라”고 권유하면 즉흥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도시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진부령 넘어 봄이 오면 강풍이 몰아쳐 대형산불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데 살 수 있겠어요.” 라고 -.

이것이 외지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고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대형산불이 한두번도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멀리 비전을 바라보며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군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주인구(定住人口)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이 유동인구(流動人口)를 흡수하는 전략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잘 활용한 곳이 화천 ‘산천어축제’입니다. 화천 정주인구는 고작 3만여명 인데 겨울 40일동안 100만명이 다녀갑니다. 화천 인구의 30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양구를 보세요. 양구

는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오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년에 전국규모 스포츠대회가 30 여개 연이어 열립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한 것입니다. 선수와 코칭스텝 학부모응원단 등이 찾아와 먹고 자고 향토특산품을 선물로 사가지고 갑니다. 철원 한탄강과 인제 내린천 레프팅은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동해에서 나지도 않는 러시아산 수입 명태로 ‘명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수입산인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탈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날 풍성했던 향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바꾸어 차별화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척 레일바이크보다 우리 고성외 동해북부선이 훨씬 아름답고 상쾌합니다. 휴전선 안보 현장도 체험할 수 있고 -. 제가 15년전 고성군에 레일바이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아무 반응 없이 감을 잡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린 잠 잘때 그들은 개발하여 강원도 가장 끝 삼척으로 관광객을 불러 들입니다. 군수되실 분들은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꿈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동인구 유인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형산불로 초토화 된 산을 방치 하거나 외지인이 골프장 운영으로 돈 벌게 해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모두 고성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드넓은 산을 지역경제 살리는 관

광자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무조건 나무를 심어 푸르게 하는 것보다 정감 가는 오솔길을 내고 진달래 철쭉 개나리 영산홍 등 시차를 두고 피는 꽃나무를 심어 겨우내 움추렸던 사람들에게 봄의 전령사가 되게 가꾸면 어떨까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큰 주차장과 작은 공연장 그리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그늘집도 만들고 -. 진달래는 왜 김소월 시에 나오는 영변에만 피어야 합니까? 이런 꽃나무들은 2~3 년이면 아름답게 자연공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가꾸어 TV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면 우리 고성은 대박이 납니다. 대박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동진 고현정 소나무가 별 것인가요? ‘모레시계’에 정동진이 나오고 나서 땀습니다.

며칠 전 고향에 갔다가 산불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다녀가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복구와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소망했는데 분노와 허탈감이 밀려 왔습니다. 이게 뭐냐. ‘개밥에 도토리’ 인가? 사랑하는 우리 고향 형제 자매님, 우리 고향 고성은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진정성을 갖고 우리고성을 발전시켜 주거나 잘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땀땀 뭉쳐 헤쳐 나가야 합니다.

◎ 약력

- 고성중 · 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졸업
- 강원대 대학원 사회학과 수료
- 강원일보 사회부 기자
-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 강원도민일보 전략기획본부장

나의 살던 고향은 ?



최삼규

아름다운 해변의 풍광을 간직한 고성군 죽왕면 가진항과 공현진항은 손을 뻗으면 잡힐 정도로 가까운 이웃이다. 지금은 자연산 횡집과 고즈넉한 포구로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40여년전 만해도 고성군민들에게 여름철 해수욕의 추억을 안겨줬던 한적한 바닷가였다.

죽왕수협이란 한 지붕 아래 사촌이나 다름없는 이곳 두 포구의 어민들은 지금은 절친이지만 한 때 서먹서먹한 사이였을 때도 있었다. 꼭두새벽에 김푸른 바다에 나가 어로 한 어패류를 아침 같은 시간대에 경매를 하다 보니 과다 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 많았다. 경쟁이 심해져 가격 경쟁은 물론이고 경매를 위해 고기잡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귀항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랐다. 두 지역 어민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쌓여가자 고민도 깊어졌다. 하지만 이들 어민들은 불평만 하지 않고 난제 해결을 위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를 하던중 경매 시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난상토론 끝에 어민들은 시간차 경매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약 1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일주일은 가진항 어민들이 먼저 경매하고, 그 다음 일주일의 공현진항 어민들이 먼저 경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두 지역 어민들은 1주일마다 경매시간을 서로 바꿔가며 이를 실천에 옮겨 수산물 가격 폭락을 막아냈고 경매시간에 맞춰 바다에서 어로활동을 충분히 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여유도 갖게 됐다. 한마디로 상생의 지혜를 짜낸 셈이다. 그런데 이 상생의 고장에 최근 들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드리워지고 있다.

겨울철 고성군 대표어종 명태는 아예 자취를 감췄고 한여름 밤 바다를 대낮같이 밝혀주며 장관을 연출했던 오징어잡이 배도 볼 수가 없다. 대표어종은 말할 것도 없고 기후 환경 급변으로 어족 자원이 줄어 횡감조차도 제대로 어획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비단 가진과 공현진항 어민들 뿐 만 아니라 해안선과 많은 항포구를 지닌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민 전체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고성의 어촌은 어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농촌도 농산물 주요 소비자였던 어민들의 감소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고 농어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노령화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수도권과 원거리인 고성지역은 정도가 더 심한 편이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 외지인들의 발길을 끌기위해 매년 명태축제를 비롯큰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중이다. 각종 개발 계획을 세워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투자유치에도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노령화를 막고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는 역부족이다.

고성군에는 통일전망대와 유서 깊은 사찰, 화진포와 관동팔경의 하나인 청간정 등 명소도 적잖게 있으나 거쳐 가는 관광을 뛰어넘어, 묵어가는 관광을 정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려한 경관의 유명 해수욕장들도 여름철 한달 가량만 북적거릴 뿐이다. 그것도 장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고성의 대표 산업이랄 수 있는 수산업이 위축되면서 농촌 지역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실정이다.

고성의 비상을 위한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민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가 하나가 돼 전혀 새롭고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날로 ‘쇠약’ 해가는 고성군의 회생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대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고성군을 휴양촌으로 가꾸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둘러보고 거쳐 가는게 핵심인 관광지로 개발하고 육성하기보다는 외지사람들이 찾아와서 비교적 오래 머물 수 있는 휴양촌으로 가꿔 가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스페인이나 남프랑스, 이태리를 많이 찾는 이유는 오래된 성당과 문화 예술의 산실 등 명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남유럽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 외에도 1-2 개월씩 머무는 외지 휴양객들이 많다. 지중해와 접한 지역에 휴양지가 많다. 햇볕이 부족한 북유럽 사람들이, 햇볕을 쬐 수 있는 남유럽의 휴양지를 찾아 한 두달씩 머물고 가는 것이 유럽인들의 여행 패턴이 돼가고 있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고 이제는 주 4일 근무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곧 도래할 전망이다. 국내의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마땅한 휴양처

를 찾지 못하게 되자 동남아로 발길을 돌려 몇 달씩 머물다 귀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인들이 해외를 많이 찾는 것은 여행 자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마땅한 휴식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성군은 특색있고 매력 있는 휴양존을 만들어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적지라고 볼 수 있다.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간에 자리해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휴양지로서의 여건을 갖췄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동해 연안의 석호인 화진포 주변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휴양시설이 즐비했고 빼어난 경관에 끌려 이승만 김일성 별장도 들어섰다. 천연기념물 201 호인 백조 도래지로 잘 알려진 송지호도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호수이다. 설악산 울산바위와 미시령 길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화암사 뒤쪽 신선대도 절경이다.

향로봉과 마산봉 등 태백준령 아래에는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룬다. 한마디로 고성군은 바다와 호수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절경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있는 미세먼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청정지역이다. 동해안 백사장 철조망도 점차 걷히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청정지역 곳곳에 제각기 특색있는 건축물과 여가 시설을 지어 휴양존을 건설한다면 고성군은 약속의 땅으로 탈 바꿈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산림이나 농경지에 퍼블릭 골프장을 여러 곳 만들어 골프 인구를 흡수하는 방안도 있다. 동해안 백사장을 모래찜질 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휴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울창한 소나무숲에는 삼림욕장을 개설하고 대단위 휴양시설을 설치한다면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 휴식처가 될 것이다.

밤하늘도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아마도 고성지역은 국내에서 밤하늘에 별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일 수도 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고급 요양시설 유치 방안도 강구해 봄직하다. 그러한 시설을 고성에 유치한다면 노인들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진부령과 미시령을 넘나들게 된다.

농촌과 어촌, 산촌마다 개성 있는 휴양시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면 취업문제 뿐 만 아니라 인구 감소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고성지역에는 해변을 중심으로 휴양시설이 있긴 하나 규모가 협소하고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다,

고성군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휴양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1)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로 이 프로젝트를 앞장서 기획하고 추진할 고성군 공직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세번째**로 지역민들의 호응과 참여이다. 휴양촌 개발계획은 고성의 미래를 열어나갈 청사진으로 전문가의 참여와 국내외 유명 휴양지의 사례를 참고해서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수립 해야한다.

단기간에 계획서를 만들어 착수하기 보다는 농촌과 어촌, 산촌 한곳씩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휴양촌을 건설해보는 방안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산촌마을의 경우 산림청에서 전국에서 운영 중

인 자연휴양림을, 어촌의 경우 남해 독일인 마을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농촌의 경우는 예쁜 농가주택 단지 건설과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은퇴자나 귀농 인구를 흡수할 수도 있다. 고성공직자들은 고성이란 커다란 마을의 관리 주체로, 이 마을의 내일을 위해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군민들은 살아남기 차원에서 이같은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동해안 최북단 ‘낙후지역 구하기’ 차원에서 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가지 필요조건을 덧붙인다면 대기업을 휴양촌 건설에 뛰어들도록 설득하고 각종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유치보다는 휴양촌 개발을 위한 설명회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 된다면 고성군은 대기업을 상대로 ‘각종 혜택을 줄테니 우리 지역에 콘도와 휴양단지 건설, 골프장, 놀이시설 등을 건설해 달라’는 주문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휴양시설 유치와 건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이고 ‘시작이 반’ 이란 말도 있듯이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 있다.

가진항과 공현진항 어민들이 대화를 통해 상생의 지혜를 얻었듯이 고성군 공직자들과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휴양을 원하는 국민들과 고성군민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땅에서 더 큰 차원의 상생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 약력

- 고성중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졸업
- 강원일보 기자
- 매일경제신문 기자
-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
- 국민일보 사장
- 재경고성군민회장

태백산의 정기



최기중

자연은 늘 우리에게 용기와 생명의 신비함을 불어넣어 준다. 대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자연의 모든 에너지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긍정적이고 인내를 지닌 사람에게만 반응을 보인다. 자연의 비밀은 인내다.

1월 초순, 참여정부가 끝나갈 무렵 행정자치부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최 교수님! 그간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태백산 올라가서 기운 받고 옵시다...!” 하고는 참여의사를 물어온다. 나는 겨울 산행이라 거절할까 하다가, ‘白’ 자가 들어간 太白山을 ‘상서로운 산’으로 여겨 참여 의사를 밝힌다.

살포시 내리는 눈[雪]을 등에 업고,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일행과 합류해 정선으로 간다. 해거름에 숙소에 도착하니 조금씩 내리던 눈이 어느 사이에 폭설로 변한다. ‘강원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뉴스를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침소로 드는데, 눈은 그칠 줄 모르며 밤새 내린다.

낭만으로만 여겼던 눈이 오늘따라 갈개꾼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것이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세안을 한

후 옷차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방을 나선다. 호텔 로비에는 함께 산행할 일행이 하나 둘 씩 모인다. 모두들 잠을 설쳤는지 낮빛이 피곤해 보인다.

우리는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태백산 등산로 입구로 향한다. 나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옷차림을 다시 한 번 낱낱이 점검한다. 방한 모자에 바라크라바(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등산용 장비)를 쓰고, 왼쪽에는 손전등을, 오른쪽에는 스틱을, 다리에는 스파츠를 착용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아이젠을 찬다. 제단은 등산준비가 완벽해 만족스럽다.

버스에서 내리자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친다. 등산로 입구에는 이른 새벽부터 등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우리는 5시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눈 덮인 태백산 정상을 향해 앞서간 발자국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오른다. 어두움과 눈보라가 나서서 길을 막으니, 발자국이 내비게이션 역할은 해준다.

등산로는 입구에서부터 비탈을 이룬다. 걷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 속은 칙칙 같은 어둠이 와락 안겨와 이정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련하다. 등산객의 대부분이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서로 알아볼 수가 없다. 나는 일행과 떨어져 손전등에 의지한 채, 앞사람의 희미한 흔적을 따라 숨을 할딱이며 걷는다.

눈길은 생각보다 힘들고 지루하다. 바라크라바를 쓰고 걸으니 숨이 막히고, 벗으니 따가운 눈보라가 안면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다리가 풀린다. ‘호텔에서 편안하게 쉴 걸...’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일행을 태백산 정상에서 만

나기로 이미 선약했기 때문에 열심히 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어둠 속에서 깊은 상념에 빠진다. ‘새해부터 포기할 수도 없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용기를 낸다. ‘그래!, 정상에 올라 태백산의 정기를듬뿍 받아 가야지...’ 주먹을 불끈 쥐고 설국(雪國)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등산객을 따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서 말없이 잠잠하게 걷는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에 오르니 좁고 험한 길이 나타난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여전히 산속은 어둡다. 앞서간 등산객은 산 중턱에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나도 그들 옆에 서서 배낭을 더듬어 바깥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물을 꺼낸다. 따뜻했던 보리차는 이미 뭉뚱 얼어붙어 있다. 입김으로 녹인 후 마신다. 보리차는 타오르는 나의 오장육부를 따라 굵이굵이 흐르더니 다시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준다.

휴식도 잠시, 나는 발걸음을 서두른다.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르고 험하다. 나무에 연결 되어 있는 로프를 잡고 한 발 씩 걸어 올라간다. 간혹 걸음걸이가 빠른 등산객도 있지만, 나는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라는 영국의 속담을 떠올리며, 천천히 여유 있게 걷는다. 한참 눈 속을 헤매고 있는데, 어둠 속 어딘가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

‘음-, 조금만 더 가면 사찰이 나오려나 보다. 사찰에서 잠시 쉬어 가야겠다...’ 반가운 마음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힘써 걷는다.

그런데 눈앞에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찰에서 흘러나오는 목탁 소리인 줄만 알고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폭설이 내리는 산 중턱 좁다란 등산로에서 등산복 차림을 한 스님이 등산객들에

게 시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소 실망했지만, 얼른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시주함에 넣는다. “스님! 성불하세요...” 하고는 정상까지의 소요시간을 물어본 뒤 계속해서 걷는다.

태백산 정상이 가까워지자 날이 밝기 시작한다. 등산로 양쪽에는 눈꽃이 활짝 피어 있다. 눈 덮인 세상을 보노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렌다. 고사된 나무가지와 원시림으로 뺄뺄이 들어찬 주목 나무, 참나무 잔가지에 눈꽃이 피어 세상을 온통 하얗게 수놓는다. ‘자연은 정말 위대하구나...!’ 잠시 시심에 잠겨본다.

눈 속에 묻힌/ 주목나무/ 고난과 역경/ 극복하고 있다/ 새싹 트는 / 희망의 날/ 새 생명 준비하는/ 천연거목// 태백산/ 외로운 골짜기에서/ 시련 견디며/ 꽃피우고 있다.

「거목」

예로부터 ‘민족의 영산이라 일컫는 태백산(1,567m)은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산’이다. 신라시대부터 성스러운 산으로 섬김을 받아 일명 ‘북악’이라 부르며, 강화도의 마니산과 같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또한 사람들은 ‘태백산은 산신령의 우두머리이고, 태백산 정기가 가장 크다’라고 믿고 있어, 새해가 되면 건강과 한해의 소원을 빌기 위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다. 정상에는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을 모신 성황당이 있고, 돌로 쌓은 제단이 있다.

태백산 정상에는 광설(狂雪)이 더욱 세차게 몰아친다. 바람에 휘

날리는 매서운 눈보라가 사람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지만, 정상에서 부는 바람을 들이키니 막혔던 가슴이 이내 땡 뚫린다.

그런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정상에서 만나기로 한 일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산을 내려간다. 하산 도중에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를 받으니 일행이다. 그들은 정상에서 약 200m 지점의 한 작은 암자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무나 반가워 땃바람에 내달린다.

일행은 사전에 예약된 암자에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다. 메뉴는 흰쌀밥에 시래깃국, 김과 김치가 전부지만, ‘시장이 반찬이라’ 산 속에서 먹는 밥은 꿀맛 같다. 우리는 K위원이 가져 온 양주를 한 잔씩 따른 다음, “위하여...!” 를 외친다.

하산 길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마치 긴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그런 기분이 든다. 우리는 썰매를 타듯 미끄러지며 내려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가 후들거린다. 밤새 어둠을 뚫고 눈 속을 헤치며 산행한지 9시간 만에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는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완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사우나에 들어간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탕 속에 들어가니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가볍다. 몸이 풀리자 눈 위를 걸어온 발길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이번태백산 겨울산행은 귀한 추억이 되고, 나의 ‘열정과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소중한 시간’ 이 된 셈이다.

겨울은 눈이 내려야 맛이 난다. 흑한 속에 산천을 온통 휘덮는 포근한 눈이야말로 겨울을 대변하는 간판이며, 백미(白眉)인 것이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계절을 누리고 싶어서, 겨울이 되면 꿈꾸듯이 눈을 기다린다. 큰 산은 웬지 높은 덕(德)이 솟는 것 같다.

● 약력

- 죽왕면 인정 2 리 출생, 경영학 박사,
- 월간 문학세계 ‘시’ 등단,
- 월간 스토리문학 ‘수필’ 등단
- (현)교수 겸 한국축제관광연구원 원장,
- (현)2019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총감독
- (현)행정안전부 지자체합동평가단 TF 위원,
- (현)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행정컨설팅 위원
- (전)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 (전)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주요저서

- 관광학개론
- 관광서비스
- 문화관광
- 관광자원해설
- 어머니와 인절미 外 40 여권

평화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



권성준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고성. 이곳에 ‘DMZ 평화의 길’이 열렸다.

4월 27일 첫 개방 전날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 평생 교직에 종사하다 퇴직 후 운명처럼 다가온 ‘DMZ 평화의 길’ 안내해설사라는 힘겨운 책무감도 있었겠지만, 1953년 정전협정으로 통제됐던 DMZ 구간이 실로 66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것이니 어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랴. 하지만 70여년 동안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을 밟아 본다는 설렘도 잠시, 내 나라 땅인데 내 마음대로 밟아 볼 수 없는 금단의 땅인 DMZ를 밟고 서 있으니 절로 서글퍼졌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말이다. 지금 DMZ 평화의 길이 열렸듯 그렇게 서서히 한 발 두 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 믿고 위안을 삼는다.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의 매력은 무엇일까?

어느 기자가 얘기했듯이 DMZ는 역설의 땅이다. 그러나 한반도 허리 250km를 동서로 나누어 놓은 철책은 인간의 개발을 막아 이 땅에 둘도 없는 자연생태의 보고를 만들었다. 더구나 이곳 고성 구간은 바다와 높고 험한 산악지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천연기념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생태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다.

두번째 매력은 금단의 문이 열리고 몇 발자국 아래로 내려왔을 뿐인데도 금강산이 파노라마처럼 손에 잡힐 듯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낸다.

이런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은 북한 땅과 가깝고 중무장한 삼엄한 느낌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숨이 짝 막히는, 감탄할 만한 매력을 지닌 곳이다. 어찌 이런 곳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먹먹해지는 길이다.



“통일전망대” 에서 본 북녘 金剛山



구선봉(龜仙峰)

이제 ‘DMZ 평화의 길’ 이 개방된 지 1 개월이 조금 넘었다. 시범 운영 한 달을 넘기며 고려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엔사 승인을 밟는 절차 때문에 미리 선정된 방문객만 출입이 가능하고, 현장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팀에서 4명 이상 신청할 수 없어 단체 방문객들의 신청이 어

럽다. 이와 함께 통일전망대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 또는 셔틀버스가 없어 개인차가 없으면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방문객들은 호소하고 있다.



평화가 경제다.

지난 4월 26일 개방되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도 ‘DMZ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 한반도 모형으로 제작된 평화의 나무에 문 대통령은 소원을 써서 걸어 놓았다. ‘평화가 경제다’가 그것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산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인해 소모되는 많은 경제적 손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
오직 평화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 약력

- 전, 고성중고등학교 교장 역임
- 현, 사)강원고성갈래길 대표이사

향토사 조명

- | 고성군의 지질자원 활용에 대하여 / 김춘만
- | 고성 하늬라벤더 팜과 장소 마케팅 / 신창섭
- | 고성지방의 구비문화 / 이선국
- | 숨은보석 아름다운보석 / 김봉연

고성군의 지질자원 활용에 대하여



김춘만

<이야기 하나> 부채바위와 주상절리

“우리 고장에 이런 명소가 있었나요?”

“네, 이 너덜바위는 신생대 3기 현무암 지대로 4기 현무암지대의 제주도보다 먼저 생성되었으니 태어난 순서로 치면 형님뻘 되겠죠. 자세히 보세요.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주상절리가 무더기로 깨어진 채 쌓여 있는 모습이 장관이랍니다.” “제주도만 주상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고장에도 이렇게 많은 주상절리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운봉산 서북쪽 방향에서 등정을 하던 답사객과 해설사가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이다. 산위에서 내려온 답사팀은 탁 트인 바다로 향했다. “어쩌면 바위마다 저렇듯 많은 구멍이 생겼나요?” “그렇군요. 바위에 골다공증이 생겼나 봅니다. 오랜 세월 파도와 소금기로 인해 풍화작용이 일어난 현상들인데 이곳은 동해안에서도 보기 드문 타포니 형성지대 명소랍니다. ” 문암진리바닷가의 능파대에는 수많은 타포니 형상의 바위들과 조선시대 4대 명필로 초서에 능했던 봉래 양사언선생의 능파대 휘호가 바위에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고성에 살고 있다고 한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고, 공기가 청정하여 사람살기가 좋다고 한다. 맞는 말

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이미지는 우리의 큰 자산이다. 지금 당장은 직접적 소득원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후대에서는 분명히 이 좋은 자연 덕분에 큰 자긍심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것이 바로 고성 지역의 지질자원이다.

시대에 따라 자연에 대한 가치기준은 달라지는데 요즘은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실제로 이런 지질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광지 보다는 이제는 지구의 민낯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지질명소를 극대화하여 모두에게 관심을 갖게 하면 자연적으로 교육과 연구, 관광의 명소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우리 고장에 이렇듯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어 국가 지질공원 명소로 지정된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지질공원이란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어 그것을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이 있고, 국가에서 선정하여 지질명소의 보호와 현명한 이용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이 있는데 우리 고장에는 바로 국가지질공원 명소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나 있는 것이다.

남한지역에서는 가장 큰 석호로 약 130여 미터의 바닷물 상승으로 이뤄진 화진포 호수지역과 고성산, 운봉산 등 우리 지역의 여

러 산 정상부에 형성된 신생대 제 3기 현무암지대, 그리고 송지호해안의 부채바위가 절경인 서낭바위 일대와 문암진리 해안안에 위치한 능파대가 바로 그 명소들이다. 이곳이 지질명소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 지질학자들의 방문과 탐사가 있었다.



운봉산 주상절리 현무암 지대를 탐방,
지질공원 해설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

2014년 강원도에서는 단 한 군데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이 선정되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함께 우리 군이 포함되어 각각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명소 21 개소를 지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질명소들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훌륭한 관광명소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연구대상이 되어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각 지자체들은 자기네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들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심사과정이 까다로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우리 강원도에 한 군데가 더 지정받게 되었다.

바로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이 선정되어 태백, 삼척을 비롯한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역시 21 개소의 지질공원 명소가 지정받게 된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기존의 관광지 이미지와 지질학적 의미를 더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은 현재까지 열 군데가 지정되었고 전체 명소 수는 187 개소가 되는데 저마다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어느 고장보다도 일찍이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고장의 지질명소들이 좀 더 관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무심히 지나치던 산 중턱의 돌무더기들, 해안가에서 해풍과 파도를 맞고 있는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 검은 바위 속에 색깔이 다른 띠를 두르고 오랜 세월 바다를 지키던 화강암들이 이제는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우선은 인근에 살고있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아 많은 답방객을 맞을 수 있다면 주민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송지호해안의 부채바위는 위 아래 화강암과 가운데 허리부분 규장암이 차별풍화를 받아서 잘록하게 되었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부채형상으로 서 있는 저 바위가 이제 새로운 만남으로 부챗살을 활짝 펼칠 것 요. 지질자원이 많이 분포된 고성이 부럽습니다.”

고성지역 지질답사를 마친 투어객의 부러움에 찬 기대처럼 지질명소 마다 활기 넘치는 발길이 닿기를 소망한다. 부채바위 위에 살포시 앉아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막 떠오르는 햇살을 받고 더욱 푸르게 날개를 펴고 있다.

<이야기 들> 관광 인프라와 지오(GEO) 브랜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 볼만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말 고성군은 '한국관광의 별 DMZ'라는 큰 상을 수상하였고, 12월 28일에는 역사적인 고성 통일전망대타워 개관식을 개최하여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예고하였다.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 소득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통일전망대와 화진포, 건봉사 지역을 연결하는 삼각벨트를 형성하겠다는 관광루트 개발계획은 침체된 우리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일으킬 것이다.

이런 계획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투자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반드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고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커다란 하나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것은 주변의 주어진 여건을 아주 세밀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지질공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지역의 지질특성을 돋보이게 하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유명 지질공원 관광지를 다녀보면 이런 지오-브랜드로 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주민 소득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오(geo)란 지질공원의 약자로 요즘은 널리 쓰이고 있다.

지난 십이월 십일부터 이틀간 관내 설악썬밸리 리조트에서 강원도 지질공원 해설사들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지질해설 경연대회와 교육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의 지오 브랜드 활용방법을 비롯하여 국외의 활용내용들이 소개되어 각 지질공원 인접 마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교육 장소에 학야1리 마을 책임자들이 참가하여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 마을은지난 십이월 구일부터 이틀간 밤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개최하였을 때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관 주도로 이끌어 가던 마을주민 소득증대 사업이 용두사미로 지지부진하다가 마을 한 구석에 덩그런 건물 하나로 그 흔적이 남았거나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점차 열기가 사그라지던 예를 많이 보아왔던 터에 이 마을의 자생적인 노력이 한층 더 돋보였던 것이다. 바로 이 마을에서 관심 갖는 분야가 지오- 브랜드 개발로 마을에 인접한 지질공원인 신생대 제 3기 현무암지대를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고장의 지질공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되는데 이때 휴전선을 가까이 하고 있는 강원도 다섯 개 군의 지질명소스물 한군데를 지정하였다. 고성군은 화진포, 송지호 해안, 능파대. 신생대 제 3기 현무암지대(운봉산을 비롯한 고성산, 두백산

등의 화산체)를 지질 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후 철원지역이 한탄강지역으로 포함되어 경기도와 묶이면서 현재 강원평화지역은 네 개 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우리 고성군의 네 곳 명소는 지질관계자들이나 탐방객들이 현장 방문시 매우 극찬하는 명소들이다.

화진포는 남한에서 가장 넓은 석호로 원형보존이 잘 되어 있고, 수생 생물이 풍부하며 오뚝이형으로 남호에서 북호로 물 흐름 현상을 보이는 특이한 구조를 지녔다. 후빙기 때 130m의 해수면 상승으로 골짜기가 침수되었고 이후 파랑으로 사주가 발달하여 이뤄진 석호로 주변 경관까지 아름다워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

송지호 해안은 백사장 길이가 2km, 폭이 100m로 물이 맑고 깊이도 얕다. 특히 남쪽에는 암석해안이 발달하였다. 서낭바위가 있는 등대 쪽 해안에는 화강암의 절리 사이로 규장질 암맥이 파고 들어간 형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회색의 화강암 체에 허리띠를 두른 듯한 규장암의 붉은 색이 수평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다. 또한 이 암석들의 차별풍화로 부채형상의 기이한 바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능파대는 죽왕면 문암2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곰보바위 형상의 바위섬이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었지만 예전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을 것이다. 풍화작용으로 암석의 측면이 벌집처럼 여러 모습의 구멍이 나 있다. 이런 형상의 바위를 타포니(염풍화 현상)라고 부르는데 집단적으로 규모가 큰 곳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능파대다.

운봉산의 신생대 3기 현무암지대는 가본 사람들은 모두 주상절리의 규모와 주변 경관에 대해 감탄한다. 고성산, 오음산 등 고성에는 산지의 5~7 부 능선에 현무암이 분포되어 있다. 이 돌무더기들을 화산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현무암들은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돌무더기가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지하 맨틀의 성분을 관찰할 수 있는 포획암을 비롯하여 아직 부러지지 않은 원형의 주상절리도 찾아볼 수 있는 지질명소다.

위에 소개한 지질 명소는 바로 우리 군의 지질 자원이며 우리 마을의 보고들이다. 지난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권(광주)을 방문하였을 때 이 지역의 단체장들은 지질관련방문자들에게 성심을 다해 지역의 지질특성을 설명하였고, 상품생산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들을 지질특성이 담겨있는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보았다. 경기도 연천지역에서는 돌도끼 모양의 빵을 만들어 내고, 철원 지역에서는 현무암의 특성을 이용한 화분과 용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도 지질 특성을 이용한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고 있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계의 지질공원 모든 곳에서 지오- 브랜드를 개발하여 주민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나 마을 주민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질공원에 대한 매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잘 가꾸진 관광지보다는 지구의 탄생과 역사를 직접 찾아보고, 꾸밈없는 지구의 본 낮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많은 탐방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고소득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원평화지역 재편성으로(철원지역이 한탄강권역으로 이동) 고성군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명소 확대 지정 가능성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하다. 우리 고장에는 지정된 명소 외에도 가치 있는 지질 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전망대를 정점으로 한 삼각벨트의 관광 개발시 이 지역의 지질자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명소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 명소를 포함시킨 통일안보 체험, DMZ 와 지질공원 특화마을(Geo-village)을 조성하여 고성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과 숙박, 문화를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되리라 생각하다.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 약력

- 고성출신
- 월간문학으로 시인 등단
- 시집 「산천어 눈빛담은 당신」 외 2 권
- 한국문인협회회원
- 국가지질공원해설사

고성 하늬 라벤더 팜과 장소 마케팅



신창섭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는 찾아가기 쉽지 않은 산촌이다. 지역에서 그 마을의 존재나 위치에 대해서 낯설어 할 정도다. 그런데 요즘 어천리가 뜨고 있다. 하늬라벤더 팜 때문이다. 조용하기 짝이 없던 산촌마을이 1일 방문객 수 천명으로 북적거린다. 귀촌 농부 하덕호 사장이 10년 공을 들여 일군 라벤더팜이 산촌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입구에서부터 코끝을 휘감는 라벤더 향기가 매혹적이다. 6월이면 순례자들처럼 관광객들이 각지에서 몰려 들고 있다. 올해도 20여일간 개장했는데 방문객이 10여만명이다.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로 발길이 붐비는 명소가 되었다.

입장료를 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멀리서 찾아와서 돈 내도 아깝지 않은 장점이 있다는 증거다. 유명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해서가 아니다. 먹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보라색 라벤더의 풍경과 그 갈피를 수놓은 양귀비 그리고 호밀밭과 메타세콰이어 나무숲이 전부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벤치에 앉아 사색에 잠기고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순례의 모습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 덕에 라벤더 아이스크림은 대박이고 관련 용품판매도 짹짹하다.

하늬라벤더팜이 주는 시사점은 사실 단순하다. 장소가 괜찮으면

사람들이 몰린다는 평범한 관광전략을 실증한다. 지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지만 이 농장 하나에 비교가능한 사업이 없는게 사실이다.

오픈기간 동안 라벤더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정원을 구경하고 산책하고 즐기는 모습 자체가 축제다. 별도로 천막을 치고 음식마당을 펼친 구태의연한 모습은 없다. 라벤더향기와 숲속에서 이어지는 작은 음악회만으로도 감동은 충분하다.

왜 라벤더 마을에 환호하는가? 원재료가 좋기 때문이다. 라벤더를 특화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상품만으로도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어거지로 뭘 설치하고 만들고 하는 인위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모든 지자체가 최소 5개 이상의 각종 축제를 년중 내내 실시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축제들이 음식부스, 특징 없는 체험으로 비슷비슷하고 기억할만 것이 별로 없다. 그러고도 몇 명이 왔으니 경제효과가 얼마라는 안일한 수치만 제시한다.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별반 관심 없고 그런식으로 지역관광이 진흥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얼마나 견인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라벤더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장소마케팅이다.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찾한다는 것이다. 장소는 역사적 장소일 수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장소일 수도 있다. 장소 콘텐츠 자체가 괜찮으면 찾아와서 즐기고 물건을 사가고 식당도 이용하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진다.

라벤더 축제는 한 개인이 자력으로 일군 쾌거다. 소셜미디어에

고성 하늬라벤더팜에 가서 좋았다는 칭찬일색의 도배가 진정 고객이 원하는 축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한사람의 귀촌인이 지역관광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하는지 근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지역경쟁력 제고다.

● 약력

- 강원도 고성군 천진리 출생, 연세대 졸업
- MBC 기자, MBC 베를린 특파원
- 중국 CCTV 한국어 방송본부장 역임, 현)고성시민포럼 대표

고성지방의 구비문학



고성문화포럼 대표
이선국

구비(口碑)란 ‘대대로 전해오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비문학이란 말로 된 문학(文學, literature)을 뜻하며, 글로 된 문학인 기록문학(記錄文學, documentary literature)과는 상대되는 문학의 기본 영역이다.

말로 전달되는 문학이라는 뜻에서 구전문학(口傳文學)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말로 된 문학이라고 해서 모든 말이 구비문학이 될 수는 없다.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누구나 정서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전달되며, 수용할 수 있는 공동 체험을 가진 말이어야 진정한 말, 문학이 될 수 있다.

구비문학의 특징으로는 우선 말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연(口演) 또는 연행(連行) 되고 단순하고 보편적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활환경, 개성 또는 작위에 의해 의도적인 첨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비문학의 대표적인 갈래로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을 들 수 있다.

설화는 전설, 신화, 민담 등 민중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수단은 기록보다 구전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변천과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우리나라 민간설화집으로는 고려시대 박인량의 수이전(殊異傳)이라고 알려져 있고, 중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설화집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편찬한 고금소총(古今笑叢)속에 수록된 문헌과 19 세기에 들어 편찬된 『계서야담(溪西野談)』 『청구야담(靑丘野談)』 『동야회집(東野彙集)』 등의 야담집들에 의해 조선후기의 설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료(史料)들이 강원지역 설화의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다.¹⁾

고성 지방도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수많은 전란과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민중들의 이동과 흐름과 궤를 같이해 독특한 지역특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문화와 융합하거나 희석되어 계속적으로 변형된 새로운 문화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강원도 민간설화는 공식적으로 1974 년 강원문화총서의 일부로 간행된 최승순 박민일 이기원 공저 『태백의 설화』 (강원일보사 발행)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 후 1977 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강원도편」에 다수의 강원도설화가 포함되어 있다.

고성지방 설화는 1984 년 발행된 『고성군지(高城郡誌)』와 2006

1) 네이버인터넷 지식백과 『학문명백과:인문학』 자료 참조

년 발행된 최웅·김용구·함복희 저 『강원설화총람VI(속초시·고성군·양양군·북강원설화·문헌설화)』, 2009년 발행된 이선국 저 『고성지방의 옛날이야기』 등의 설화를 정리 수록한 것이 설화 자료의 근간이 되고, 북 고성지역은 1991년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리용준 저 『금강산 전설』 등이 대표적인 자료이다.

민요는 민중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불리며 구전된 민중의 노래다. 말로 존재하지만, 노래로 불린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고 민중의 생활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또한 민요는 함께 부르는 노래로 내용, 곡조가 소박하고 단순해 특별한 훈련 필요 없이 구연으로 전승되며 자기감정에 충실한 노래로 자족적인 성격을 가진다.

대표적인 민요는 노동요다. 예부터 농사일, 어로작업 등 고된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달래고 흥을 돋기 위해 많이 불렀다. 예를 들면 모심기와 김매기 소리, 방아소리, 후리질소리, 미역따기 소리, 고기잡이 소리, 노 젓는 소리 등이 그것이다.

유희요는 동요를 포함하여 일반 오락을 위한 노래로 놀이를 진행하거나 놀이를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한 기능이 크다. 예를 들면, 널뛰는 소리, 설날 소리, 화전놀이 소리 등이 있다.

의식요는 민중들이 치르는 의식의 과정에서 민중들에 의해서 불리는 노래로써 마을 공동행사나 의례, 제의 시 많이 부르며, 집단적인 제의 행사 등 공동작업장에서 구성원들이 하나되어 염원을 담아 부른다. 예를 들면, 지신밟는 소리, 지정다지기 소리, 상여소리, 묘다지는 소리, 회다지기 소리, 귀신쫓는 소리 등이 그것이다.

비기능요는 특정한 기능을 목적으로 부른다기보다 개인의 주된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로써 대표적으로 아리랑이 있다.

구비문학의 또 다른 장르인 무가(巫歌)가 있다. 무가는 무속제의 의 현장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다. 즉 구연 및 전승의 주체가 무당이라는 특수한 기능인에 한정되어 불리는 노래다. 무당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명확한 유형 분류가 쉽지 않으나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襲巫)로 나뉜다.

강신무는 말 그대로 신(神)이 내린 무당을 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병(巫病)을 앓다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경우다. 강신무는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예언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세습무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대대로 세습되는 무당이다. 인간의 뜻을 신에게 청하는 사제의 기능을 가지며, 주로 한강이남 쪽에 분포돼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외래종교가 유입되기 이전의 무당은 ‘나라굿’을 주재로 제사장(祭司長)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 전해지는 우리의 건국신화들은 바로 이런 나라굿에서 불리던 신화의 잔재로 이해할 수 있다.

고성지방의 경우,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용왕제 또는 어신제에서 그 뿌리가 근근이 이어지고 있다.

구비문학의 중요한 장르인 판소리, 판소리는 직업적인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긴 이야기를 말과 창을 교체해 가며 관중들

앞에서 구연하는 한국의 전통 구비 서사물이다. 소리꾼은 노래를 부를 때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소리를 하는데, 이때 노래로 하는 부분과 말로 하는 부분이 교차되어 나타난다. 노래로 부르는 부분을 ‘창(唱)’ 이라 하고, 말로 하는 부분을 ‘아니리’ 라고 한다. 고성지방의 경우는 판소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속극은 민간에서 행위로 전승되는 연극으로서, 곳에서 진행되는 무극(巫劇), 남사당이라는 유랑 연예집단이 놀리던 인형극(人形劇), 각 지역에서 행해지던 탈놀이를 말하는 가면극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가면극, 즉 탈놀이는 탈을 쓴 배우가 등장해 춤과 노래를 섞어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사연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골계적(滑稽的) 대사와 극적 갈등이 잘 어우러진 완벽한 연극으로, ‘탈’ 이 가진 조형 예술성, 춤사위의 무용 예술성 또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성지방의 경우, 최근 일부 예술단체에서 <금단작신가면놀이>를 재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성지방의 설화는 민중들의 삶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기념물의 성질에 따라 인물과 사물 설화로 구분할 수 있고, 사물도 인공물과 자연물로 다시 분류하기도 한다.

고성지방에 분포 전승되고 있는 옛날얘기 중에는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물과 인물 설화가 많은 편이다.

인물설화는 사찰, 지명, 암석, 정자, 고개 등의 기념물과 결부되

어 전승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편이다. 인물의 신분에 있어서는 광개토대왕, 공양왕 등 왕에서부터 강감찬장군, 양사언, 이식, 정철, 김삿갓 등 관리 또는 학자, 풍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등장하고, 발정화상, 사명대사, 만해와 같은 승려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도 구분하지 않는다.

인물 설화와 함께 고성군 전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찰설화다. 금강산, 설악산 등 관내 주요 명산에는 수개의 사찰이 있어 그 나름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사찰설화는 유점사, 발연사 등 그 창건과 관련된 연기설화가 있고, 건봉사 염불만 일회와 등공대,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향로봉사, 제조암 등 사찰과 연관된 신화적인 설화가 다수 전해지기도 한다.

사찰과 성황당, 탑 등이 대표적인 인공물 설화에 해당하고, 산과 고개, 암석, 소(沼), 못(池), 호수, 폭포, 길과 지명, 지형 등에 따라 전해지는 설화가 자연물 설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용과 주제에 따라 권선징악의 교훈담, 신앙담, 효행담, 괴기담, 동물담, 소화(笑話), 형식담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성황당 설화는 사찰의 연원설화와 같은 연기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황당은 농촌마을에는 보통 하나씩 있고, 어촌마을에는 낚여 성황당으로 구분되어 두개씩 있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의 애환이 담긴 성황당 설화는 마을의 생산과 안녕, 민중의 소원을 담고 있는 설화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의 지명·암석과 관련된 지명설화와 암

석 설화도 많다. 금강산 노적봉과 촛대봉, 매바위, 만냥골, 한하게 곶바위, 범바위, 동자바위, 삼선암, 절부암, 개구리바위, 옥황상제 바위, 토끼바위, 거북바위, 해금강의 몽천암, 통천 되넘이 고개, 금난굴, 부부암, 옥교암, 남쪽 고성지방의 울산바위, 벽력암(벼락바위), 용선바위 거북바위, 화암사 수바위, 이름바꾼 가정자원집, 개미데기, 화진포성과 별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옛날 얘기들이 전해진다. 수려한 산, 지형·지세와 같이 자연풍광과 관련된 옛날 얘기들은 민중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 재미있는 우화(寓話)의 형태 또는 사실형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고성지방 설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험한 산과 고개가 많아 이와 관련된 설화도 많다. 산·지 형·지세와 관련 설화 중에는 명당자리 금시발복을 비롯해 외금강, 삼일포 등 풍수와 관련된 설화도 있다.

지명 전설은 대개 지명의 연원(淵源)을 설명하는 얘기로써 대체로 소박하고 간단한 줄거리로 되어 있다. 동해왕과 싸우다 실패한 송지포 정영중 설화, 신라의 사선(四仙 화랑)들이 삼일동안 놀다가 간 곳이라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는 삼일포 설화가 그것이다.

못(池, 湖, 井)과 관련된 설화가 ‘장자못 설화’이다. 긴 해안선을 따라 석호가 발달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교훈적인 장자못 설화도 많다. 화진포와 고총서낭, 송지호 정부자 등의 설화는 모두 장자(부자)의 탁발승 박해에서 승려의 응징에 이르는 불교지향적인 권선징악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호랑이, 용, 이무기, 지네, 두꺼비, 여우 등의 동물이 등장하는 동물담도 많다. 관대바위 설화, 향로봉사 삼부처와 호환을 넘긴

아이, 송지포 청년 정영중, 분노한 추담 황용, 호환 구한 조상신, 큰짐승 물리친 여인, 범과 개싸움, 용마 굴레 주운 건봉사 스님, 부인 빼앗은 왕지네, 개미데기 의견비(義犬碑), 은혜 갚은 두꺼비 등의 설화가 있다.

아기장수 설화에도 용마가 등장하고 그 기념물은 산이나 못이 나타난다. 간성읍 금수리의 아기장수와 천하정·천혜장, 노인산과 아기장수, 용마굴레를 주운 건봉사 스님 등이 대표적인 아기장수 설화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설화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고려 공양왕, 강감찬 장군, 겸재 정선, 봉래 양사언, 사명대사, 만해 한용운 스님, 김삿갓과 같이 왕과 관리, 학자, 승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 얘기도 전해진다.

고성지방에는 효행에 관한 설화도 많다. 함희석 효자각, 함씨 4세 5 효자각, 노상언 효자각, 효자 전봉상 등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각에 대한 설화도 사실로 전해진다.

인물 설화는 다양하지만 대개 단편적인 설화가 많다. 고성 삼일포는 신라의 사선(화랑)이 삼일동안 놀던 곳이라든가, 강감찬 장군이 화진포 솔밭의 모기와 개미를 부적으로 소탕했다든가, 간성에 고려 마지막왕의 귀향지와 무덤이라 전하는 설화가 집성촌 문중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애뚱이 지혜, 물속 명당, 드센 집터 오좌수, 산삼 노인과 팔모야광주, 피 흘린 산삼과 심성고운 부부, 신기한 방아다리 돌절구, 치성으로도 못 바꾼 팔자, 밥 먹은 산삼, 자마석 무송

대, 수토양주 산암일구 등 권선징악,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진 수많은 고성지방의 옛날 얘기는 민중들의 정서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진솔하고 아름다운 조상들의 삶의 얘기들이다.

고성지방의 민요는 모심기와 김매기 소리, 방아 소리, 후리질소리, 미역따기 소리, 고기잡이 소리, 노 젓는 소리 등 노동요가 대부분이다.

무가(巫歌)의 형식은 매년 음력 3월 초순과 9월 중순에 등대 밑 성황당과 어판장에서 거진 어신제(성황당 치성제)로 행하고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으로 5,6명 정도의 무녀들을 동원하여 3~4일씩 당굿을 하면서 풍어제를 올려 왔으나 근래에는 무녀 1명으로 봄, 가을에 치성을 올리고 있다. 혹시 항구 내에서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시에는 부정을 없앤다 하여 무녀들을 동원 3~4일씩 큰굿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형화된 무가(巫歌)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판소리와 민속극의 자료가 빈약한 편이나 1980년 이후 읍면별로 순포풍년농사놀이, 반바우후리질, 명파돌다리놓기, 곰바우미역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재현되어왔다.

고성지방은 지리적으로 동해안을 따라 한반도의 동쪽 중허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높은 백두대간과 드넓은 동해, 짧은 하장(河長),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자수려하고 풍요로운 농어촌지역이다. 특히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품성이 거칠고 각박하기 보다는 온화하고 순박하다. 이러한 자연과 인문환경을 배경으로 이어온 구비문학 역시 부드럽고 따뜻한 민중의 심성을 그대

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비문학은 사람에 의해 전승되거나 생성 소멸되기 때문에 그 기록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註> 본 내용은 2019년 집필된 필자의 『고성군지』 「구비문학」편 원고를 인용하였다.

숨은 보석 아름다운 보석



김봉연

옛말에 이면수 생선 껍데기로 씹을 싸 먹다가 기와집 팔아먹었다는 전설의 고향이 고성군 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나무 장작불로 쌀밥을 짓고 그 숯불로 생선을 구워먹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동해안 6개 시,군을 두루 근무하면서 살아본 결과 고성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향로봉을 비롯한 백두대간 준령의 참나무 숲에서 발원한 하천이 굽이굽이 심곡을 거쳐 동해 바다로 흐르면서 비옥한 농토에 한발에도 물 걱정 없을 정도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 할 수 있게 하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담수를 연안에 흘러 보내 어족자원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성군은 지하수가 풍부하여 고려 말에는 수성군이라는 별호가 붙여지고 지금도 군청 소재지 일부 지역에는 파이프를땅속에 꽂으면 지하수가 땅위로 솟아오르고 있다.

고성군은 관광자원이 많아 관동팔경 중 한곳인 청간정을 비롯한

천학정, 화진포, 송지호, 건봉사, 통일전망대, 마산봉, 그리고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모집 할 때 울산에서 올라오다가 점심 먹느라고 늦어 주저앉았다는 설화가 있는 울산바위 등 고성팔경 외에 문화재로 지정된 감시초소, DMZ 평화둘레길, 수중금강산이라고 하는 죽도 주변의 해중경관지구는 완공되면 인근 송지호 철새전망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지면 관계로 우선 화진포와 건봉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화진포는 성품이 고약한 이화진이라는 구두쇠 영감이 탁발 스님의 쌀이 담긴 바랑에 쌀 대신 쇠똥을 퍼 넣었다가 천벌을 받아 그의 재산이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다는 전설이 있는 담염호로 호수 주변에 울창한 소나무 숲은 산소 발산량이 많아 힐링 하기에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호수 동쪽 바닷가 해금강이 건너다보이는 절벽 위에는 김일성 별장이 자리하고 있고 서쪽 맞은편 산기슭에는 이승만 박사의 별장, 호수 가에는 이기붕 별장이 있을 정도로 명승지이다.

화진포 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드문 3S(오염원이 없어 투명하고 아름다운 쪽빛 바다:sea, 공기가 맑아 작열하는 태양:sun, 영겁에 걸쳐 조개껍질이 부서져 쌓인 금모래:sand)를 두루 갖추고 수심이 낮아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천혜의 해수욕장이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하여 원각사로 불렸으나 사찰 서쪽에 봉황새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서봉사, 건봉사로 개칭하게 되었다. 건봉사는 염불만일회의 효시로 세조는 이 사찰로 행차하여 원당으로 삼은 뒤 성종 때는 노비와 미역바위, 염전을 하사하고 사방 10 리 안을 모두 사찰 재산으로 삼게 하여

부유한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이 사찰의 재정지원을 받아 승병과 의병을 기병하고 일제 때 에도 만해 한용운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유학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훗날 독립운동을 하게 하는 등 호국의 본거지가 되었다, 임진왜란 후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잡혀간 포로 송환을 위하여 일본에 건너갔다가 왜적들이 통도사에서 약탈해간 진신사리를 찾아와 그중 12 과를 자신이 승병과 의병을 규합했던 인연이 있는 건봉사에 봉안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수사과장으로 근무 당시 도굴범이 약탈해간 12 과 중 8 과를 회수하여 재봉안하게 되었다. 유서 깊은 이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호국영령들을 추념하는 뜻에서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약력

-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오피니언 칼럼

｜ 동양사상과 간성군 고찰 / 어재동

｜ 캠핑장 안전수칙 준수로 힐링을 떠나보자 / 유중근

동양사상과 간성군 고찰



魚在東(淸江)

杆城郡(간성군)의 터를 바로잡은 것은 1631년 신미 인조9년 태풍당(澤風堂) 李植(이식)선생이 간성현감으로 부임하여 郡,學堂(군,학당)을 창건하여 우매한 자제를 敎育(교육)한때 부터였다.

澤堂(택당) 李植(이식)선생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면서 精神文化(정신문화)를 높이 사랑하는 동양사상을 고취시키고, 그 뜻을 反芻(반추)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개인주의와 물질적인 면을 앞세우는 西洋(서양)문물로 인해 조상을 숭배하고, 가족을 제일로 생각하는 우리 주변은 병들어 감을 실감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목격하며 실감하는 富貴(부귀), 그것은 浮雲(부운)과 같다고,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굽혀 베개삼아도 즐거움이 그안에 있나니” 의롭지 못한 부귀는 뜬 구름과 같다는 우리의 소박한(論語 술이편)시운을 잊볼 수 있다.

그중에서 孝(효)는 百行之本(백행지본)이고, 忠(충)은 出於(출어) 孝門(효문)이다. 살아서 다못한 孝道(효도)를 죽어서도 이어 간다는 그 소급을 말한다. 中國의 이름난 孝子(효자)는 曾子(증자), 子路(자로), 민자건, 子貢(자공), 楚(초)나라의 老萊子(노래자), 伯榆(백유), 단

지의 석진, 竹筍(죽순)의 맹종, 잉어의 왕상, 전국시대 미자하 등이고, 한국의 효자를 열거하면 끝이 없으나 옛 현인들은 물론이고 김순영 황해도 해주인으로 호방한 성품의 孝子(효자)(金九 白凡의 父親), 반희연 강원도 춘천인, 감기연 첨모령(減己年 添母齡) 내가 먹을 나이를 보태서 어머니가 오래 살라는 뜻 “이글을 써놓고 늘 기도를 했고, 사람들은 六字(육자) 기도라 했다.

孝에 무감각 해지고, 패륜의 時代를 걷는 요즘은 無智의 소치로서 조상을 위하는 것은 우상숭배도 아니요 사람의 근본을 지키는 일로 그 일을 기피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돈(재물)밖에 모르는 금수보다 못한 존재이다, 이를 잘 지켜 나가는 사람은 유학을 잘 전수하여 인간본연의 책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 올라가면 安重根(안중근)기념관이 있는 곳에 쓰여있는 현판에 쓰여진 문구에(論語, 한문생략) 利와 得을 보면 올음(義)을 생각하고 사회나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때에는 스스로 없이 목숨을 바치라는 말이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유학공부를 열심히 하고 東洋思想을 重示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人物들이다.

참된 知識人(지식인)들은 祭思敬(제사경) 제사 지낼때는 정성을 다하고, 喪思哀(상사애) 죽음을 당했을 때는 진심을 다해 슬퍼하는 사람이다.

이씨조선 초기 세조때 死六臣(사육신)의 한사람 梅竹軒(매죽헌) 成三問의 時調를 소개하면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면서 이제(夷弟)를恨하노라, 주려 죽을 진들 채미(採薇)도 하는 것가, 비록에 꽃세엿 것인들 그 뉘파에 났나니.

成三問이 中國에 갔던 길에 伯夷(백이)와 叔齊(숙제)의 무덤앞에 찬양의 비문이 새겨진 빗돌에다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서 붙였다.

<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의 시(詩) >

大義 堂堂 日月明(대의 당당 일월 명)

叩馬 堂年 敢言非(고마 당년 삼언 비)

草木 亦沾 周雨露(초목 역척 주우 로)

愧君 猶食 首陽 薇(괴군 유식 수양 미)

대의는 당당히 해와 달처럼 밝아, 말을 잡던 당년에 감히 잘못을 말했다, 풀과 나무또한 鬪나라 비와 이슬을 먹고 자란다, 당신들이 여전히 수양산 고사리를, 먹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 한다. 그랬더니 빗돌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는 것이다, 백이와 숙제의 영혼이 바로 죽지 못하고 고사리로 연명한 자식들의 소행이 너무도 안타까워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이다. 死六臣의 주동 인물인 成三問인 만큼 가히 있음직하다

끝으로 조선시대 四大文章家(사대문장가)인 澤堂(택당) 李植(이식) 선생은 370 년전에 이고장 杆城 현감으로 보여준 주군의 역할이 가일층 발전한 것으로 인지되며 1632 년 인조10 년에 성균관 부제학으로 체귀했다.

善政(선정)을 베풀어 정신적인 지주를 세워준 고마움을 잊지않고 그 뜻을 反芻(반추)해보는 기회로 삼으며 우리들이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사명이 아닐까?

● 약력

- 江原道 高城郡 竹旺面 筍浦里 出生
- 한문학
- 成均館 四書五經 3期修予(7年間)
- 杆城鄉校 掌儀 등.

캠핑장 안전수칙 준수로 힐링을 떠나보자



고성소방서장
유중근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청 추정수치에 따르면 캠핑 인구는 이미 500 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캠핑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크고 작은 캠핑장 안전사고 역시 증가해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럼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보내기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번째로 날씨 체크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후변화가 심해 낮에는 맑고 저녁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캠핑을 즐기는 동안의 날씨 체크는 필수다. **두번째**로 음식 조리 후에는 불씨를 확실히 끄고 숯불 등의 잔불이 없는지 확인하며 화재에 대비에 미리 인근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세번째**로 텐트 고정 줄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야간에 텐트 고정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야광줄을 사용하거나 밝은 색상의 손수건을 줄에 묶어 두는 것이 좋다. **네번째**로 야영장은 벌레가 많기 때문에 벌레에게 물리면 즉시 비눗

물로 씻어주고 난 뒤,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침 제거 후 환부는 얼음찜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캠핑을 하다 보면 찢리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상풍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텐트 안 전열기구 조심하기, 캠핑장 내 소화기 위치확인·휴대용 소화기 준비하기, 물놀이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등이다.

안전은 누군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캠핑장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전한 캠핑으로 힐링을 떠나보자.

향토문단

| 보석의 섬 제주도 탐방기(2018), 2019. 문화탐방을 떠나다 / 최선호

| 그렇거니 하세요! / 박봉준

| 가을날 귀향의 꿈 / 황연옥

| 고향살이 / 연경숙

보석의 섬 제주도 방기 2018. 2019. 문화탐방을 떠나다



최선희

하나 들어가며

초여름을 알리는 지난 2018년 6월 26일부터 28일(2박3일)까지 고성문화원(원장 주기창)에서는 제주도 문화탐방에 나섰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문화원 임원 및 회원들의 신청자가 많아 늦게 신청한 회원은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고 탈락자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참가비용은 1인당 150,000원으로 50%는 문화원에서 보전하여 문화탐방이 이루어졌다.

우리 고성에서 출발 하는날 이른 아침부터 고성종합체육관 앞 광장에 모여 관내 운수사업체인 금강산고속관광버스 2대에 분승하여 1대는 간성지역, 또 한대는 거진, 현내, 죽왕, 토성지역 회원들이 탑승하여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편리한 복장으로 가방이나 배낭에 간단한 짐을 챙겨왔고 차내에서 고성문화원 직원들이 정성들여 챙겨온 간식으로 우리 고장의 고유 전통 절편(떡)을 간식 도시락 세트로 준비하여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모두 들 차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감상 하면서 잘 만들어진

양양에서 서울로 통하는 동서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달려갔다. 그러나 서울에 진입하자 많은 차량으로 정체 현상이 일어나 거북이 걸음은 유가 아니다. 참 답답하였다. 이것이 고통 지옥임을 실감하는 서울의 교통상황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무튼 뭐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제주 문화탐방에는 특히 전, 문화원장을 역임했던 이병찬, 황연인, 이진영 원장이 노령에도 스스럼없이 동참하여 후배들을 격려하여 그 뜻을 한층 기렸다.

우리 일행은 김포공항에서 오후 3시 10분발 Asiana Airline s HL7528 에 탑승하여 제주탐방에 올랐는데 항공기 탑승인원은 약 300 명의 비교적 큰 비행기였고, 제주까지 비행시간은 55 분이 소요됐다.

비행기에서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니 벌써 제주공항에도착, 공항 로비에는 안내 가이드(안내원)가 피켓을 들고 반가히 말아주며 차량으로 안내했다, 제주관광 Arirang Tour Bus 로 제주탐방이 끝날 때까지 운송한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탄 2 호차 가이드 이름은 김은주라 했다. 그러나 은주라 부르지 말고 자기를 썬년이라고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에서는 자기 이름을 썬년(?)으로 부른다고 했다! 무엇이 썬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쌍소리 같기도 했는데, 아무튼 좋다고 하니 불러 주기로 했다.

40 살이 넘어서 결혼했다는 썬년은 처음엔 육지로 시집을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는데 어찌 어찌하여 제주도 놈과 결혼했는데 5년

이 지났는데 아가 없다는 것, 그녀의 말로는 “님을 봐야 뽕을 따지” 라고 농담을 토로했다. 제주도는 원래 생활활동이 여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남자들은 집에서나 보는 옛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다.

또한 자량을 늘어 놓는다, 제주도 내 관광가이드가 약 350 여명이 되는데 자기가 이쁘기로 순위 5위란다, 하긴 동굴 넓직한 외모가 잘생기지도 아주 밍지도 않은 스타일이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첫날엔 애월 한담해안 산책로를 돌아봤다. 이곳 바닷가 해안에는 많은 탐방객들이 봄볕고 공원 한편에 돌로 깎아 세운 물허벅 여인상이 세워져 있는데 제주도에 상수도 시설이 없을 때 식수를 지어 나르던 유일한 생활 도구로서 물허벅(물동이)을 등에 진 제주 여인상은 선인들의 근면함과 애환이 깃든 상징물이기도 하다.



제주탐방기념 단체촬영 (날씨가 안개가 끼어 뿌옇다)

우리 일행은 이곳 탐방을 마치고 곧장 지정된 WeeHotel(Sun

Land)에 여장을 풀고 2인1조로 배정된 숙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저녁 식사들을 끝내고 제주시 야경을 위해 뜻있는 회우들끼리 삼삼오오 숙소를 빠져나와 유흥가로 향해 한잔씩 짹하고 2차로 노래방을 향했다.

본인도 옛날 공직생활 때 먹던 가락이 있어 자제하지 못하고 과음하여 다음 날 여정에 막대한 고통, 아니 머리가 아파고 쭈셔 관광이고 뭐고 다 귀찮아 버스안에 죽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노릇이었다.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술을 나이 생각도 않고 많이 먹어주었으니 말이다.

2째날은 산방산 유람선에 탑승하여 제주용머리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음미하였으나 안개가 끼여 선명치 못 한것이 좀 아쉬웠다. 또한, 분재공원의 스카이워터쇼는 장관이었다. 물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율동과 스카이다이빙의 공연이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속박물관, 마을관리 민속촌 똥돼지 사육장을 방문했는데 해설사가 침이 마르도록 구수한 유머와 함께 열변을 토했다. 제주똥돼지 사육은 원래 주민들이 돼지우리 꼭대기 얹아 큰 것을 보면 남자들은 데롱데롱 2개가 달려 돼지가 꿀꿀 되고 그것을 먹기 위해 꼭대기를 쳐다보고 야단을 치며 몸을 털면 큰일 이란다. 그래서 몽둥이를 갖고 들어가야 된단나? 그런데 여자들이 들어가면 보이는게 없어서 돼지가 우리의 땅바닥만 주둥이로 파낸다고 와이담을 해댔다.



제주민속촌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지역으로 지난 2011년 11월 11일 선정된 한라산(Mt Hallasan)국립공원 일원이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한라산, 만장굴, 성산 일출봉,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 폭포, 주상절리, 용머리해안, 수월봉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기도 했다.

제주의 상징이기도 한 한라산은 해발 1950m로서 완만한 경사와 방패형 화산으로 고도에 따라 독특하며 다양한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학술적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나다.

제주탐방을 모두 마치고 귀향하는 날 우리 차량 가이드는 달변으로 고향에 가져갈 제주의 선물 품목들을 선전하며 권유했는데 특히 제주에서 생산되는 지수정 팔찌는 전자파 방지에 매우 탁월하

다며 온갖 미사여구로 유혹했다, 또한 제주만이 있는 말가죽으로 만든 혁대를 차고 다니면은 후퇴는 없고 오로지 앞으로 승승장구 한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솔깃하며 쇼핑센터에서 구매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튼 기념품 사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제주탐방 일행들은 제주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고 하늘로 치솟았다. 기내에서 내려다보이는 하늘 아래는 희디흰 몽개구름이 솟털같이 아름다운 운무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장관을 이루었다.

한명의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귀향한 일행들 !
내년에도 한 회원도 탈 없이 또 국내외 문화탐방에 참여하여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하기를 기원해 본다.

문화탐방 함께 하신분 -무순-

이병찬, 황연인, 이진영, 함동조, 주기창, 김호진, 임연식, 박유조, 최세현, 이철균, 황병구, 어명호, 조인호, 김임술, 안의봉, 윤선준, 탁동진, 김일관, 한창영, 황상연, 최선호, 황재철, 전재실, 엄기원, 문창래, 윤택규, 전태원, 이병운, 최영봉, 홍의현, 박세봉, 장병운, 박인태, 조득현, 박원식, 최병선, 추수엽, 김정무, 홍종철, 최봉림, 함형복, 정봉순, 함승본, 박호현, 김선철, 함대식, 윤병국, 배용성, 홍성두, 송광석, 김정현, 정귀식, 김복순, 김교회, 윤숙자, 정선자, 김영애, 김애자, 강수옥, 문영심, 김정임, 윤두환, 최금애, 안종호, 이수자, 홍순홍, 김숙자, 엄채란, 김영애, 김영길, 이순식, 김장민, 박동환, 최윤정, 김미선(75 명)

둘째 들어가며

2019, 문화탐방을 떠나다 !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2019년 6월26일~27일(1박2일) 고성 문화원에서는 주기창 문화원장을 비롯하여 회원 60여명이 관내 금강산고속관광 버스 1,2호차로 나누어 타고 문화탐방의 장도에 올랐다.

1호 차량은 거진, 죽왕, 토성면의 회원들이 탐승을 하였고, 2호차에는 간성지역 회원들이 탐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데 아침 6시 30분에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모였다. 이날 출발전 일찍이 이경일 고성군수가 나와 잘 다녀올 것을 격려하는 인사말을 전하였고 곧장 출발을 했다.

관광버스는 미시령터널을 경유 하여 인제, 홍천에서 잘 건설된 중앙고속도로를 달려 약 4-5시간만에 첫번 탐방대상지인 “구인사(救仁寺)에 도착했다. 구인사는 대한불교천태종의 총 본산지로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소백산(小白山) 제4봉인 수리봉 아래 6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위치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라 하며 1만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하며 그 규모도 대단하였다.

이곳에는 제일 꼭대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르면 대조사전(大祖師殿)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구인사(救仁寺) 템플스테이가 있어 산사에서 신선처럼 휴식과 체험을 할 수가 있으며, 佛教天台宗中央博物館(불교천태종중앙박물관)이 있어 한국불교문화

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 곳이다.



비가 축축이 내리는 가운데 충주호 유람선에 승선



구인사 대조사전 앞에서 기념촬영

다음 코스로 충주호 유람선(구담호) 탐방에 들어갔다. 환상적인 내륙의 바다로 잘 알려진 곳으로, 마침 가랑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유람선에 승선하여 청풍호변 푸른 물결과 그림 같은 호반의 아름다운 기암괴석들을 감상하며 선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틀째 날 아침 일찍이 숙소에서 나와 옛길의 명성을 간직한 문경시의 “문경새재”를 탐방했다. 일부 몇몇은 힘들다는 이유로 차량에 남아 있었으나 거의 일행들은 탐방에 나섰다. 문경새재는 날아가는 새들도 쉬어가는 고갯길로 이름나 있으며, 술한 애환이 깃든 곳이며, 대자연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이어서 문경 도자기 박물관을 관람하였는데 문경 도자기는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순수한 멋과 투박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고성문화원 방문단을 맞아 가이드를 맡은 여성이 친절하게 안내, 문경전통도자기의 역사와 제작과정 출토된 자기류와 지역 도인들의 혼이 깃든 작품등을 설명, 해설에 열변을 토해냈다.

그리고 마지막 탐방코스인 청풍호반 케이블카에 올라 내륙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가 있었다. 청풍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0km 구간으로 중부내륙에선 최장을 자랑한다고 했다.

필자는 케이블카를 타고 비봉산 정상에 오르니 초상화 그림 그리 는 작가가 있기에 의자에 정숙히 앉아 약 20 여분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니 일행 모두가 차량에 탑승하고 기다리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케이블카 탑승료는 1인당 13,000 원인데 이곳 지자체에서 한 사람당 2,500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환불 하여 주어 지역특산품을 사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의 발상이었다.

이번에 탐방에 동참한 회원들은 주로 문화원 동아리 회원들 귀농, 귀촌한 분들이 몇 명 있어 처음만남을 가졌기에 차량 운행 중 함께 탑승한 회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모르는 회원은 직접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문화탐방에 동참할 것을 기약하면서 끝으로 참석자 명단을 소개한다.

(아래)

문화탐방 함께 하신분 -무순-

황연인, 전제동, 이진영, 임연식, 김낙곤, 주기창, 최선호, 함상옥, 박원식, 추수엽, 정봉순, 함태신, 함영훈, 함대식, 최병선, 홍성두, 김호진, 임승환, 함동조, 이철균, 김동기, 박유조, 최세현, 최영봉, 이병직, 신준수, 탁청하, 이선훈, 문창례, 이병훈, 배용선, 이병운, 윤두환, 최금애, 김영길, 이순식, 윤순임, 이종식, 이용자, 박재원, 박대근, 최도균, 김복순, 김교회, 이정숙, 정매화, 윤숙자, 함양분, 김미선, 김선미, 최윤정, 박인태, 조득현, 김장민, 박동환, 이문원, 황재균, 황홍균.

◎ 약력

- 수성문화제 홍보이사
- 고성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 환경일보 강원지역본부 부장
- 금강산림교육센터 대표.

그렇거니 하세요!

고성문인협회장(시인)

박봉준

객지에서 살다가 귀향을 한 지도 벌써 오 년째다.
그동안 부려먹지 못하고 참았던 뼛물이 터진 듯 본의 아니게 분위기에 떠밀려서 회장직을 몇 개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이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래 그런 자리가 조금씩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방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때 완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내 처사가 생각할수록 한심하기만 하다.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였다 하면 카톡방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교환과 친목을 다지는 게 대세인데 그중에서도 나는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카톡방이 제일 골칫거리다. 물론 동창생들이 다 속을 썩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그런 속을 썩이는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는가 보다.

우리가 태어난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초등학교 졸업생 동창생이 시골이지만 무려 210 여명이나 되고 현재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인원이 80 여명이나 된다. 물론 강제로 초대된 친구도 많지만, 어쨌든 클릭을 하는 걸 보면 의사표시는 하지 않아도 내용은 다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경로우대를 받는 나이인데도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고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살려는 욕구가 충만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초등학교 때의 아련한 향수가 이곳으로 유도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바람직한 현상이며 아름답

다운 만남의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치 얘기가 문제다. 온라인 단체 모임에서 계명처럼 금기되어있는 것이 종교나 정치 얘기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판이 깨지거나 오프라인에서 난투극으로 번져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이나 시민이나 모두가 중독성을 띠게 되는 아주 위험한 속성을 지닌 것이다. 특히 요즘 한국의 정치는 이념적인 색채가 강하고 정치적인 매스미디어가 도처에 산재하다 보니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것이 정치 얘기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일치하는 순간 부터 또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싫어지는 시점부터 우리는 그들의 뻔뻔한 궤변과 현란한 말솜씨에 세뇌당하지 않을 수 없다. 세뇌당 하면 좀처럼 탈출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뇌 구조인가 보다. 거기에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운 기질과 독단적인 신념과 학설(Dogma), 가짜뉴스까지 합세하여 무지하고 성질 고약하다는 오명을 들으며 여생을 보내는 이 시대의 늙은이들이 참으로 딱하기도 하고 슬프다. 나 또한 타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어느 은사님께서 정치란 흐르는 탁류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뚱뚱물에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부어봐라, 그 물도 뚱뚱물이지 깨끗해지겠느냐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는 늘 생생하게 떠오른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더러운 뚱뚱물에 알게 모르게 발을 담그고 있는 나를 비롯하여 많은 우리 동창생들이 걱정스럽다.

누구 탓인가? 누구는 언론이나 정치인을 거론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미디어 그리고 발전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한 몫을 거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 정치에서도 그 해법을 찾기 어렵듯이 단체 카톡방에서도 진보나 보

수, 중도를 떠나서 정치에 물든 동창생들이 있는 한, 해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동창생을 징계할 수도, 제명할 수도 없는 참으로 진퇴양난이다. 언론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수록 비례하여 혼탁해지는 카톡방. 마치 휴화산처럼 언제 용암이 분출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기어코 다시 솟아오를 것 같은 예감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회장직을 맡은 직후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이 카톡방을 해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여기서거 알고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는데 카톡방 회원 모두가 탈퇴하지 않는 한 해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여 그 생각을 접었다. 내 마음을 아는 동창생들이 전화해서 그냥 “그렇거니” 하라고 위로를 해 주었지만, 한동안 뭔가 개운치가 않았다.

가짜뉴스나 막말, 경계를 넘나드는 발언도 또한 골칫거리다. 그러잖아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전달하여 고발당하거나 방송을 타는 것을 보고 한 번쯤이라도 고민해 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속을 끓일 때가 더러 있다.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내세워 반격하는 동창생들을 볼 때면 어찌 그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과 유사한지 혀를 내 두를 지경이다. 물론 그것이다 매스컴에서 보고 듣고 배운 영향일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유튜브가 성행하여 제대로 입맛에 맞는 채널을 즐겨 시청하다 보니 노인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더욱 철옹성이 될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나는 우리 동창생들의 카톡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가 더 걱정스럽다. 누구는 이념적인 문제가 해방된 직후 한국의 정세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으나 과장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때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

으니 가늠할 수가 없다.

역사란 과거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 언제 그 진실이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고고학의 오류와 오판의 예를 들지 않아도 대부분의 역사가 승자 중심의 기록이라고 하니,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그 진실과 믿음이 어느 순간에 바뀌더라도 그것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받아드릴 수 있는 유연성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명백한 사실이므로 그 역사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올바른 사회와 국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에만 치중하다 보면 되풀이되는 역사 앞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저 괴물 같은 정치적인 이념도 진실한 역사와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올바른 이념을 지닐 수 있는 것인데, 현실은 매스컴이나 미디어, 학자, 언론, 종교, 단체 등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그저 우울하고 답답할 뿐이다.

초등학교 때의 향수가 그리워 친구들을 불러 카톡방을 만들고 철 지난 유머에도 함께 웃어주며 틈만 있으면 유익한 정보나 동영상, 노래 등을 열심히 올려주는 착한 영혼들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날을 세우는 현상이 비단 우리 동창생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를 사는 한국 사회의 병폐요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제발 온라인 단체 모임에서만은 종교나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

동창생들과의 화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카톡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조차 올릴 기력과 관심도 없어질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행복에 겨운 투정일지도 모른다. 해가 갈수록 동창회 명단에서 하나둘 지워질 사랑스러운 이름들이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때가 그리워진다고 눈물 흘릴 때를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는 받을지라도 동창생들이 “그렇거니” 하라고 덕담으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곱곰이 새겨볼 일이다.

● 약력

- 고성군 아야진 출생
- 2004 시와비평 등단
- 고성문학회장
- 한국문인협회 강원고성지부회장
- 시집 [입술에 먼저 붙는 말]
- 2018 년 강원문화예술지원금 수혜
- 현) 강원문인협회 이사

가을날 귀향의 꿈



황연옥

생전에 부모님께서는 농부로 자수성가하시어 손수 지으신 한옥을 오래도록 자식들에게 지켜달라고 유언하셨다. 손위 오빠가 한분 계셨는데 지병으로 집을 관리할 힘이 없으셔서 2003년에 오빠 소유로 된 아버지의 집을 매입하였다. 내가 12살 되던 해 지은 집은 부모님 몸 같았고 이 집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고향에 올 수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러 해 관리를 못해 집이 많이 퇴락해 있었다. 지붕이 새서 나무기둥은 썩고 방안의 가구도 빗물이 스며들어 모두 망가져 있었다. 다행히 대들보와 주된 기둥들은 튼튼했다.

몇 년 동안 남편과 주말과 방학에 고향에 내려와 집을 수리하였다. 남편은 장인어른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평소에도 존경하였고 진심으로 아버지 집을 수리하였다. 용역을주어 썩은 서까래를 갈고 삭은 기와를 내려 새것으로 용마루를 틀어 기와를 다시 잇고, 집 내부도 수리하였다. 무너진 흙담을 보수하고 마당에 보도블럭을 깔고 도로와 경계되는 정원석도 쌓았다.

집 구석구석을 정비하고 꽃을 심고 가꾸기를 십여 년이 넘게 하

였다. 집의 모습이 예전보다 멋지고 아름다워졌다.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순서대로 피어나는 다년초를 심었다. 수선화, 꽃잔디, 영산홍, 작약, 철쭉, 화초달맞이꽃, 장미, 백합, 국화……

계절이 바뀌어도 집 주변엔 항상 꽃이 피었고 길가 집이라 마을 입구가 환해졌다. 특히 작약꽃을 많이 심었는데 작약꽃 피는 5월 이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차를 멈추고 화사한 꽃과 고가의 모습을 사진에 담곤 하였다.

집 이름을 짓자고 하였다. 큰아들이, 외할아버지가 집을 지으시고 아버지가 리모델링을 하셨으니 ‘아버지의 집’ 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아들 말대로 하였다. 먼 훗날 이 집에 애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듯 가꾸어 주겠다는 묵시적인 의미가 마음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공예를 하시는 분께 부탁하여 피나무로 ‘아버지의 집’ 이라는 태호를 만들어 달고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농사일로 힘드셨을 아버지 일생을 기려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초상」 이라는 아담한 시비를 집 앞에 세웠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일해 자수성가하고 살아온 부모님의 의지와 교훈이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아버지의 집’ 수리를 다 마치고 부모님의 뜻을 글로 적어 액자를 만들어 대청마루 중앙에 걸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고 황병락, 남계자, 아버님 어머님이
1963년에 지으신 이 집이/
형제 이웃들 간에 우애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신앙인들에게는**

기도하는 평화의 집이 되게 하소서/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게 하시고/ 문인들에게는 창작의 샘터가 되게
하소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전문성을 넓혀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어/ 오래도록 부모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2005년 7월, 장녀 황연옥 글을 짓고 은천 이일숙 쓰다.

평소 부모님이 바라던 말씀을 내가 글로 쓰고, 국전에 입상한 서
예가 은천 이일숙 선생님이 정성을 들여 한글 정자체 붓글씨를 써
주셨다. 요즘도 이 집이 간간히 문인들 창작공부방이 되곤 하지만
위의 여러 바램들이 오래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랄 뿐
이다.

또 하나의 꿈은 문화활동으로 마을 사람들이 도란도란 하나가 되
는 마을을 가꾸는 일이었다. 이 일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추
진해 나아가야할 지역적인 과제 일지도 모른다. 수복지구에 살았
던 조상들의 아픈 상처가 후손들에게 까지 남아 있고, 살아가며
겪는 일상의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에 결들은 감정의 골이 깊
어 마을에서도 서로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었다.

소통의 도구로 생활예술, 체조 등 여가활동을 택했다. 의외로 마
을에 예술 작품 활동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
과 귀농한 분들까지 한마음이 되어 경노당에서 생활예술 활동을
하고 추수가 끝난 가을에 초예전(초계리예술전시회)을 고성문화원
전시실에서 전시하였다. 금년에 세 번째 전시회를 갖었다.

첫해는 마을에 살고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의 작품을 회원들이 자비를 건어 전시하였다. 지난해부터 고성문화원에서 우리 마을을 대상으로 문체부에 농촌마을 문화활동 프로젝트 지원신청서를 냈는데 채택이 되어 전시회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전시하게 되어 문화원에 감사한 마음 크다.

30 여 호 되는 주민들 연령이 40대에서 90대이다. 연령분포가 큰데도 프로그램을 잘 따라 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강원문화재단의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정말 즐겁게 참여하셨다. 예전에 가내 생활용품을 자급자족 하던 분들이라 그런지 연로한 나이인데도 솜씨가 정교하였다. 자신이 만든 밥그릇, 국그릇, 접시, 물컵에 음식물을 담아 드신다는 어르신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

사포에 크레파스 그림 그리기, 물감놀이로 데칼코마니, 불기, 찢기 등의 활동을 하며 자신의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 같은 작품전시회를 다 해보니 출세 한 것 같다고 행복해 하셨다.

2년째 강원문화재단의 ‘신나는 예술여행’ 등 지역협력 특화사업에 채택이 되어 지난해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3회나 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오죽헌, 선교장 등 강릉일대로 문화탐방도 다녀왔다. 금년에도 민요잔치한마당, 도자기 만들기, 일러스트 가방 만들기 등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졌다.

그림그리기, 물감놀이, 탈 만들기, 공예소품 만들기, 천연염색하기, 체조교실,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며 공감대 갖기 등으로 마을 주민들이 내적, 외적인 삶의 격조가 높아져 가고 있다. 여건상 동참을 자주하기 힘든 분들은 휴대폰으로 찍은 야생화나 농작

물 사진을 현상해서 전시하는 등, 가급적 마을 주민 모두 참가하게 하였다.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도란도란 작품활동을 하고 이야기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멀어졌던 거리가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

문화란 개인이나 주민들의 삶의 가치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문화가 없다면 세상은 삭막해진다. 이 일들을 추진하며 오히려 내가 배운 게 더 많다. 얼마 후엔 나도 인생의 겨울날을 맞이하리라.

인생의 가을날, 고향에 돌아와 뿌린 문화의 씨앗들이 우리 고장에 환한 빛이 되길 기원한다. 이 일들은 이웃에 유익을 주고 먼 훗날 내 인생의 풍요로운 추억도 되겠기에 할 수 있는 날까지 동행하는 길손들과 손잡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
오늘도 들녘엔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 약력

- 고성중고, 춘천교대, 숙명여대교육대학원졸업
- 부천여성문화회장역임,
- 고성문화회장역임,
- 현)강원문인협회이사
- 저서: *시집 「시인의 단추」 외 4 권
 - *수필집 「아름다운 날 좋은 사람과 함께」
 - *동시집 「감자 속에는 푸른 풀밭이 있나 봐」
 - *동화집 「땅꼬마 민들레」

고향살이



염경숙

타향살이 몇 해딘가 손꼽아 헤어보나~
고향 떠난 십여 년에 청춘만 늙어~

너무나 오랜만에 고향으로 발령이 났다. 아직 엄마가 어천리에 계시기에 가끔 다녀가기는 했지만, 막상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니 새로운 느낌이다.

수복상회, 홍제당, 서울서점, 낮익은 간판들도 반갑고 마주친 친구 얼굴이 어릴 적 그 아이 부모님 모습이다. 낮익고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설피고 물설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언니가 고성문화원에 문예창작반을 개설한 다며 참여를 권유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문학 수업, 시조와 시 수필을 배우는 시간이 나의 삶을 흔들어놓았다. 여름밤 모기에 뜯겨 가며 문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이었다.

소풍 삼아 참여한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 제6회 ‘님의 침묵’ 백일장에서 참여한 우리 모두의 시조가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날 차상을 받은 내 작품은 우연히 시조창을 하는 분과 연결이 되어 수성 문화제 때 연주되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만추’ 라는 시조이다.

까치밥 남겨놓은 가지에 바람불면
무우청 가지런히 시렁에 매달고서
창호지 꽃잎 붙이며 그려보는 그 얼굴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왕곡마을 정미소에서 시화전을 열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내었다. 시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도 있었다. 한편의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감동이었다.

문창반을 수료하고 고성문학회 동인지에도 작품을 올렸다. 그리고 ‘여문회’ 라는 이름으로 매월 한차례 서로의 작품을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고향은 역시 푸근하고 아늑하며 용기를 주는 곳이다. 그냥 지나다가 들려도 언제나 반겨주는 친구가 있는 곳, 잊었던 추억을 꺼내주는 풍경과 사람들, 익숙한 억양과 말투, 질리지 않는 음식들, 맑고 푸른 하늘, 깨끗한 바람, 눈부신 바닷가, 정겨운 논둑길, 제비 찾는 처마 밑, 등등 모르고 살았던 나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고 이번에 ‘시조생활사’ 제 119 호 신인문학상에 당선되며 등단한 것도 고향살이가 안겨준 선물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다시 타향에 살고 있지만, 어느새 추억이 된 기억들을 떠올리면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자주자주 고향을 찾고 있다.

“금강산에서 시화전을 여는 그날을 희망하며 !”

● 약력

- 강원 고성 어천리 출신
- 만해백일장 시조부분 차상(2017)
-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 회원<여문화>동인
- 제 28 회 신인문학상(시조생활 제 119 호 등단)
- 현, 강릉오성학교 교육행정실장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시(時)

- | 삶 / 최형운
- | 눈부신 경정 / 김향숙
- | 여름 한낮 / 황귀식
- | 깨달음, 인연, 약속 등 (3편) / 최기종
- | 서예(한글, 한문)
- | 한국화
- | 유화
- | 민화
- | 사진
- | 각자
- | 시화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시(詩)

삼

지나간 것은 다
그리움이였다네
서로 만난 그 때는
하늘도 바다도
온통 푸른색이었지

푸른 꿈 찾아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과의
사잇길에서
서성거리기도 했다네

얽히고설킨 것을
함께 풀고 견뎌 준
서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길을 찾았지

늦가을 저녁 하늘
곱게 필 노을 그려보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아쉬움뿐이라네



| 시인 최형운 |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시(詩)

눈부신 경전

동창을 열고 부신 눈으로 손을 흔든다

황금빛 불 지피며 떠올리는
해금강솔섬, 거북섬, 죽도, 백도

어떤 불빛이 저렇게 환하여
꽃나무 아래서 즐거운 노래 부를 수 있는지
어떤 불빛이 이렇게 따듯하여
모두들 감싸 안은 손길이 되는지

가라홀 달홀 지나
수성에서 고성으로 건너오던 세월을 기억하는
성실한 궤도
눈부신 경전

화진포, 송지호 하늘을 돌아
향로봉, 신선봉 붉게 적시며
천천히 거두어들이는 우아한 옷자락

가던 길 멈추어 서서 손을 흔든다

■ 시인 김향숙 ■

- 2003년 <시현실> 등단 시집: 따듯한 간격
- 한국문인협회 회원, 속초 설악문우회(갈매) 동인, 고성문학 동인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시(時)

여름 한낮

앞산과 뒷산이 마주 앉았다
하늘이 한뼘 해가 한발자국 건너 뛰었다
별이 그리워 소나무는 목만길고
할일없는 바위는 서로 등을 기대고 누웠는데

쫓그라진 초가한채
아이는 하루종일 발가벗고 놀고
멀구 다래가 익어가는 여름
엄마는 하루종일 산에서 살았다.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시(時)

깨달음

인생은
시소(seesaw)와 같습니다

나를 높이면
남이 나를 내리고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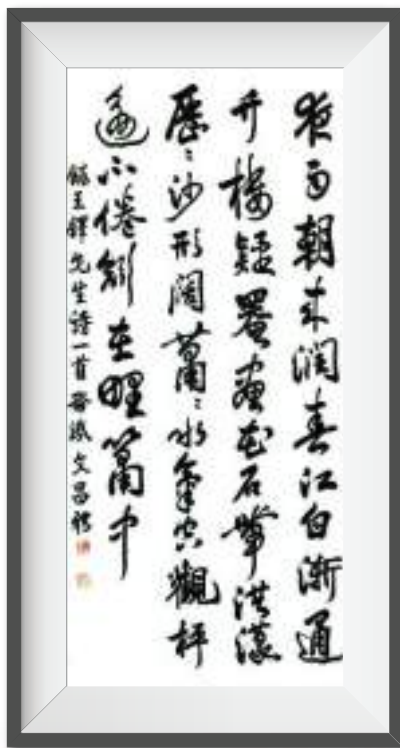
인왕산 여로(旅路)에서
비로소 깨닫하였습니다.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한문서예



최봉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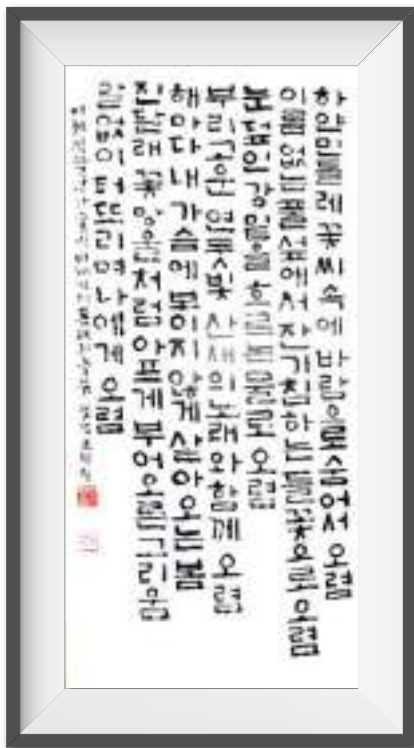
문창례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한글서예



응답



조방실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한국화



산수유가 핀 고향 - 김정순



코스모스 길 - 박숙종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서양화



정원 - 주윤옥



라벤더 필 무렵 - 최향미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민 화



제36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축하 민화 출품전시회



수성문화제 부스에 설치 된 민화 출품작품들 (2018년)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사 진



연 - 홍의현



수묵개바위 일출 - 임은경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사진



북천하구의 노을 - 윤선준



왕곡마을 - 최영봉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각자



청간정(택당 이식) - 寒松최선희



명태가 돌아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 이규동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시화



스물 - 김춘만



엄마 - 김향숙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시화



세월 - 최형운



라벤더 - 홍의현

문화원 소개

Ⅰ 고성문화원 연혁

Ⅱ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및 역대 문화원장 소개

* 고성문화원 연혁

년월일	연혁내용
1983.10.01	고성군청 별관 1층 임대사무실 설치
1983.10.01	고성군청 별관 1층 임대사무실 설치
1984.01.06.	설치허가 490호 (문화공보부장관) 대표자 : 함병철 (초대회장) 이사 : 함병철, 이백규, 김경명, 이귀림, 이복수, 최달구, 함정균, 함형운. 감사 : 김성호, 전정인
1984.01.06	사무국장 : 함형운 임명
1985.03.01	고성군청 별관 2층 증축으로 사무실 이전
1985.11.20	고성문화원 착공
1986.12.31	고성문화의 집 준공
1987.01.06	고성문화의집 1층으로 사무실 이전
1988.01.06	문화원장 : 함병철 유임
1988.12.20	영상음악 감상실 개설
1992.06.22	함희조 문화원장 취임(1996.6.21.까지)
1994.07.05	부원장 : 이병찬, 심규섭(취임)
1994.08.09.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법인설립인가
1996.06.28.	임원취임승인 (원장 : 함희조, 부원장 : 권오진, 이병찬) 유임이사 : 이성식, 신임이사 : 김대현, 윤용수, 권오훈, 김영태, 김성호, 조정현

년월일	연혁내용
1998.06.20.	문화원장 함희조 사임, 권오진 부원장 직무대리 임명
1998.07.13	이병찬 문화원장 취임
2002.01.01	사무국장 남병옥 임명(공개채용)
2002.03.02	간사 최윤정 채용(현,과장)
2004.04.01	고성문화원 정관변경(제14조 임기 제2항)
2004.06.29	제7대 황연인 문화원장 취임
2004.06.29	감사 : 최선희, 박덕조
2006.07.01	사무국장 박명재(공채)
2008.06.29	제8대 황연인 문화원장 유임
2010.02.24	감사 : 최선희, 윤금열
2012.08.29.	제9대 이진영 문화원장 취임 감사: 황재철, 황광률
2014.07.01	사무국장 김장민 채용
2016.06.29	제10대 주기창 문화원장 취임
2016.06.29	감사 : 한선제, 윤택규
2014.02.	팀장(채용) ; 김미선.
2018.04.	주임(채용): 박동환.

*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및 역대 문화원장 소개

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원장	주기창	간성읍 수성로 84 번지	010-3563-3154
부원장	남영자	간성읍 교촌길 146-18	010-8897-1604
부원장	윤영락	거진읍 동진@ B 동 6004	010-5366-3200
이사	김성희	거진읍 태봉동길 3	010-5374-3810
이사	김철수	토성면 인흥 3 길 7-10	010-5115-1452
이사	김춘만	죽왕면 공현진 1 리(동해대로)	010-8761-9516
이사	남성연	간성읍 신안 6 리 3 반(미성환경)	010-5368-0062
이사	문명호	거진읍 거탄진로 138	010-4524-1172
이사	송운석	간성읍 상 1 리(간성로 86)	010-4710-2563
이사	어명호	죽왕면 삼포 2 리(전원가든)	010-5375-9030
이사	이영일	거진읍 거진길 40	010-3891-6819
이사	이용하	현내면 대진 1 리 36 번지	010-9042-2669
이사	이철균	간성읍 상리(간성로 89-13)	010-4211-2286
이사	이춘우	토성면 천진리 148-1	010-8795-2421
이사	이학봉	현내면 대진 2 리 9 반	010-6372-0527
이사	장정희	간성읍 상리 동해@ 306 호	010-5364-5193
이사	전순표	간성읍 상리 2/4	010-3798-2775
이사	전연표	간성읍 신안리(시장)	010-5365-4433
이사	전제동	간성읍 신안리 3/2	010-6378-2528
이사	정경진	토성면 인흥리 509	010-5330-3249

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사	최봉림	간성읍 신안리 282	010-5374-5497
이사	최세현	거진읍 대대 2 리 1 반	010-6370-2653
이사	한창영	간성읍 석미모닝@ 102-1102 호	010-5373-2156
이사	함상옥	간성읍 신안리 314-1	010-5274-2025
이사	홍종철	거진읍 거진 8 리	010-5379-2720
이사	황광율	간성읍 상 1 리 4 반	010-2023-2091
이사	황상연	거진읍 포남길 47	010-5376-3356
이사	황재철	간성읍 금수리	010-6271-3300
감사	한선제	죽왕면 삼포 2 리 239-36	010-5363-0023
감사	윤택규	간성읍 어천리(꽃내마루길 20-20)	010-2371-2303

* 역대 문화원장 연혁

- ◆ 제 1 대, 제 2 대 : 함병철 원장 (1984 ~ 1992)
- ◆ 제 3 대, 제 4 대 : 함희조 원장 (1992 ~ 1998)
- ◆ 제 5 대, 제 6 대 : 이병찬 원장 (1998 ~ 2004)
- ◆ 제 7 대, 제 8 대 : 황연인 원장 (2004 ~ 2012)
- ◆ 제 9 대 : 이진영 원장 (2012 ~ 2016)
- ◆ 제 10 대 : 주기창 원장 (2016 ~)

회원가입

| 고성문화원 회원자격 및가입방법

*** 고성문화원 회원이 되는 자격 및 가입방법**

전화 또는 고성문화원 사무실로 직접 내방 하시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 회원자격

회원자격 :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시거나 고성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자로서 본원의 취지와 목적사업에 동의하는 자.

둘. 회비

년 회비 : 50,000 원.

셋. 납입계좌

농협 247- 01-305242 (예금주 : 고성문화원)

넷. 문의전화

TEL : 033)681-2922. FAX : 033)681-2928.

*** 고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며 지역 문화 교류, 사회교육 등 군민의 문화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귀하를 고성문화원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문화원이 하는 일 ?**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4.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 문화원의 회원이 되시려면 ?**

1. 정기 간행물 “고성문화” 와 본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를 받아볼 수가 있음.
2.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받게 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비디오, CD 등) 대출이 가능합니다.
4. 회원자격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문화원 운영 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의견 제시 등.

高城文化 제 8 호 (2019년)

인쇄일 : 2019. 10.30

발행일 : 2019. 10.30

발행인 : 주기창(고성문화원장)

기획인 : 김장민(고성문화원 사무국장)

편집인 : 최선희

문화원 전화 : 033)681-2922

팩스 : 033)681-2928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 비매품 |

* 이 책은 고성군비 지원으로 발행되었음.

문화 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의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사대에 걸맞게 세제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창의성 개발, 우리문화의 체계화,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적 책임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
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기대하여야 한다.

- 제1조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제2조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매개체가 된다.
- 제3조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 계층이 없도록 힘써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제4조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제5조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 조직으로 적극 표상한다.

XXIX. VI.10

대한민국 224회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
강강산과 동해가 만나는
고성



江原道
高城文化院

www.goseongcul.com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TEL : (033) 681 - 2922